

제 1 교시

국어 영역

[고전 소설]

(수능 완성 - 작자 미상, 「홍부전」 // 고1, 2014.03)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상강 떼기러기 가노라 하직하고 강남서 나온 제비는 왔노라 나타날 때, 오대양에 앉았다가 이리 저리로 날며 넘놀면서, 흥부를 보고 반겨라고 좋을 호(好)자 지저귀니, 흥부가 제비를 보고 경계하는 말이,
 “고대광실* 많건마는 수숫대 집에 와서 네 집을 지었다가 오뉴월 장마철에 털썩 무너지면 그 낭패가 아니겠느냐?”
 제비가 듣지 않고 흠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안아 깨인 후에 날기 공부할 때, 뜻밖에 구렁이가 들어와서 제비 새끼를 물수이 먹으니, 흥부 깜짝 놀라 하는 말이,
 “흥악한 저 짐승아, 좋은 음식 많건마는 무죄한 저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으니 악착스럽다. 제비 새끼가 은나라 대성 황제를 낳았고, ㉠곡식을 먹지 않고 살아나니 인간에 해가 없고, 옛 주인을 찾아오니 제 뜻이 다정하지만, 제 새끼가 이제 다 죽임을 당했으니 어찌 불쌍하지 않으리.”
 이렇게 경계할 때, 이에 ㉡제비 새끼 하나가 공중에서 똑 떨어져, 대밭 틈에 발이 빠져 자근 부러져 피를 흘리고 발발 떠니, 흥부가 보고 펄쩍 뛰여 달려들어 제비 새끼를 손에 들고 불쌍히 여기며 하는 말이,
 “불쌍하다 이 제비야, 은왕 성탕(成湯)의 은혜가 미쳐 금수를 사랑하여 다 길러 내었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가련하지 않으리. 여복소, 아가어미 무슨 당사(唐絲)* 실 있습나?”
 “아이고, ㉢굶기를 부자의 밥 먹듯 하며 무슨 당사실이 있단 말이요?”
 하고, 천만 뜻밖의 실 한 뉘 얻어 주거늘, 흥부가 칠산* 조기 껍질을 벗겨 제비 다리를 싸고, 실로 곱게 감아 찬 이슬에 얹어 두니, 십여 일이 지난 뒤에 다리가 완전히 굳어 제 곳으로 가려하고 하직할 때, 흥부가 비감(悲感)하여 하는 말이,
 “먼 길에 잘들 가고, 삼월에 다시 보자.” 하니,
 저 제비 거동 보소. 두 날개 부는 바람에 몸을 날려 백운(白雲)을 비웃으며 주야로 날아 강남에 이르니,
 제비 황제가 묻기를,
 “너는 어이 저느냐?”
 제비 여쭙기를,
 “소신의 부모가 조선에 나가 흥부의 집에다가 집을 짓고 소신 등 형제를 낳았삽더니, 뜻밖에 구렁이의 변을 만나 소신의 형제는 다 죽고, 소신이 홀로 죽지 않으려고 하여 바르작거리다가 똑 떨어져 두 발목이 자근 부러져, 피를 흘리고 발발 떠온즉, 흥부가 ㉣여차여차하여 다리 부러진 것이 의구하여 이제 돌아왔사오니, 그 은혜를 십분지일이라도 갚기를 바라나이다.”
 제비 황제가 하교하기를,
 “그런 은공을 몰라서는 행세치 못할 금수라. 네 박 씨를 갖다 주어 은혜를 갚으라.”

(중략)

그달 저 달 다 지내고 3월 3일 다다르니, 강남서 나온 제비가 옛 집을 찾으려 하고 오락가락 넘놀 때에, 놀부가 사면에 제비집을 지어 놓고 제비를 들이모니, ㉤그 중 팔자 사나운 제비 하나가 놀부 집에 흠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안으려 할 때, 놀부놈이 주야로 제비집 앞에 대령하여 가끔 가끔 만져 보니, 알이 다 꿩고 다만 하나가 깨었다. 날기 공부를 힘쓸 때, 구렁이가 오지 않으니, 놀부는 민망 답답하여 제 손으로 제비 새끼를 잡아 내려 두 발목을 자근 부러뜨리고, 제가 깜짝 놀라 이르는 말이,
 “가련하다, 이 제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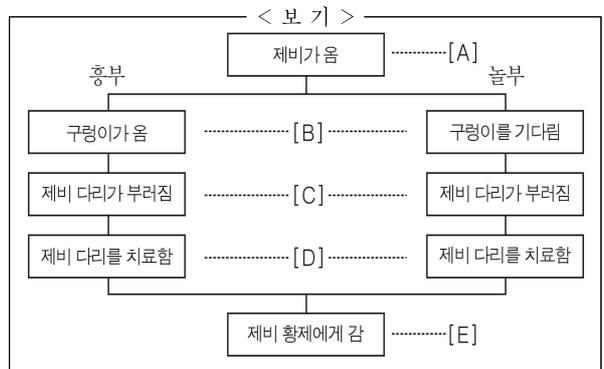
하고 조기 껍질을 얻어 찬찬 동여 ㉥뱃놈의 닳줄 감듯 삼층 일레 연줄 감듯 하여 제 집에 얹어 두었더니, 10여 일 뒤에 그 제비가 9월 9일을 당하여 두 날개를 펼쳐 강남으로 들어가니, 강남 황제가 각처 제비를 점교*할 때, 이 제비가 다리를 절고 들어와 엎드렸더니, 황제가 신하로 하여금,
 “그 연고를 사살하여 아뢰라.”

하시니, 제비가 아뢰되,
 “작년에 웬 박 씨를 내어보내어 흥부가 부자 되었다 하여 그 형 놀부놈이 나를 ㉦여차여차하여 절뚝발이가 되게 하였사오니, 이 원수를 어찌하여 갚고자 하나이다.”
 황제가 이 말을 들으시고 대경하여 말하기를,
 “이놈 이제 전답 재물이 여유 있되 동기를 모르고 오름에 벗어난 놈을 그저 두지 못할 것이요, 또한 네 원수를 갚아 주리라.”

- 작자 미상, 「홍부전」 -

- * 고대광실(高臺廣室): 매우 크고 좋은 집.
- * 당사(唐絲): 중국에서 들어온 명주실.
- * 칠산: 서해안에 있는 조기의 명산지.
- * 점교(點交): 일일이 점을 찍어 가며 조사함.

22. 윗글의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사건 전개상의 발단이 되는군.
- ② [B]에서 흥부는 구렁이를 ‘위험’의 존재로 생각하는 반면, 놀부는 ‘도움’의 존재로 생각하는군.
- ③ [C]는, 흥부에게는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놀부의 입장에서는 의도적 사건이군.

- ④ [D]는, 흥부는 연민의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놀부는 물질적 욕심에서 한 행동이군.
- ⑤ [E]에서 제비 황제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군.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 모습이나 소리를 흉내 낸 말을 사용하여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 ③ ㉢: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 ⑤ ㉤: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며 행동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24. ㉠와 ㉡의 쓰임을 고려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고전 소설에서는 고전 소설만의 독특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의 ‘여차여차하다’도 고전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인물의 대사 속에 ㉠, ㉡처럼 표현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학생: _____

- ① 앞에서 전개된 사건의 반복적 진술을 피하게 합니다.
- ② 장면의 전환을 예고하여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냅니다.
- ③ 사건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지게 합니다.
- ④ 하나의 사건을 독자가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 ⑤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성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수능 특강 - 작자 미상, 「춘향전」 // 고1, 2014.06)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련님 들어가니 사또 말씀하시되,
 “서울에서 동부승지 교지가 내려왔다. 나는 문서나 장부를 처리하고 갈 것이니 너는 식구들을 데리고 내일 바로 떠나거라.”

도련님 아버지 명을 듣고 한편으로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춘향을 생각하니 흥중이 답답하다. 사지에 맥이 풀리고 간장이 녹는 듯, 두 눈에서 더운 눈물이 펄펄 솟아 옥 같은 얼굴을 적시거늘 사또 보시고,

“너 왜 우느냐. 내가 남원에서 평생 살 줄 알았더냐. 내직(內職)으로 승진하였으니 섭섭하게 생각 말고 오늘부터 짐을 급히 꾸러 내일 오전 중에 떠나거라.”

겨우 대답하고 물러나와 안채로 들어간다. 사람이 직위고 하를 막론하고 **모친**과는 거리낌이 적은지라. 춘향이 얘기를 울며 하다가 꾸중만 실컷 듣고 춘향의 집으로 간다. 설움은 기가 막히나 노상에서 울 수 없어 참고 나오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지라. 춘향 문전 당도하니 통째 건더기째 보자기째 왈각 쏟아져 놓으니,

“어푸 어푸 어히.”

춘향이 깜짝 놀라 왈각 뛰어 내달아,

“애고 이게 웬일이요?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꾸중을 들으셨소? 오시다가 무슨 분한 일을 당하여 계시요? 서울서 무슨 기별이 왔다더니 상복 입을 일이 생겼소? 점잖으신 도련님이 이것이 웬일이요?”

춘향이 도련님 목을 담쪽 안고 치맛자락을 걷어잡고 옥 같은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이리 씻고 저리 씻으면서,

“울지 마오. 울지 마오.”

도련님 기가 막혀 울음이란 것이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울던 것이었다. 춘향이 화를 내어,

“여보 도련님! 우는 입 보기 싫소. 그만 울고 까닭이나 말해 보오.”

“사또께옵서 동부승지가 되셨단다.”

춘향이 좋아하여,

“택의 경사요. 그러면 왜 운단 말이요?”

“너를 버리고 갈 터이니 내 아니 답답하나.”

“언제는 남원 땅에서 평생 사실 줄로 알았겠소. ㉠ 나와 어찌 함께 가기를 바라리오. 도련님 먼저 올라가시면 나는 여기서 팔 것 팔고 추후에 올라갈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내 말대로 하면 궁색하지 않고 좋을 것이요. 내가 올라가더라도 도련님 큰 택으로 가서 살 수 없을 것이니 큰 택 가까이 방이나 두엇 되는 조그마한 집이면 족하오니 엽탐하여 사 두소서. 우리 식구가 가더라도 공밥 먹지는 아니 할 터이니 그렇저렇 지내다가, 도련님 나만 믿고 장가 아니 갈 수 있소. 부귀공명 재상이 요조숙녀를 가리어서 혼인할지라도 아주 잊지는 마음소서. ㉡ 도련님 과거 급제하여 벼슬 높아 임지로 떠나가서 신임 관리로 행차할 때 첩으로 내세우면 무슨 말이 되오리까? 그리 알아 조처하오.”

“그게 이를 말이나. 사정이 그렇기로 네 얘기를 아버님께는 못 여쭙고 어머님께 여쭙으니 꾸중이 대단하시더라. ㉢ 양반 자식이 부형 따라 지방에 왔다가 기생집에서 첩을 만나

데려가면 앞날에도 좋지 않고 조정에 들어 버슬도 못 한다 더구나. 불가불 이별이 될밖에 별 수 없다.”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별안간 얼굴색을 바꾸며 안절부절 이라. 불으락푸르락 눈을 가늘게 뜨고 눈썹이 꼳꼳하여지면서 코가 벌렁벌렁하며 이를 뾰드득 뾰드득 갈며, 온몸을 수수일 틀 듯하고 매가 평을 쉼 차는 듯하고 앉더니,
“허허 이게 웬 말이오.”

㉓ 왈각 뛰어 달려들며 치맛자락도 와드득 좌르륵 찢어 버리고 머리도 와드득 쥐어뜯어 싹싹 비벼 도련님 앞에다 던지면 서,

“무엇이 어찌고 어째요. 이것도 쓸데없다.”

거울이며 빗이며 두루 쳐 방문 밖에 탕탕 부딪치며, 발도 동동 굴러 손뼉치고 돌아앉아 자탄가(自嘆歌)로 우는 말이,

“시방 없는 춘향이가 세간살이 무엇하며 단장하여 뉘 눈에 사랑받을꼬? 몹쓸 년의 팔자로다. 이팔청춘 젊은 것이 이별 될 줄 어찌 알랴. 부질없는 이내 몸을 허망하신 말씀 때문에 신세 버렸구나. 애고 애고 내 신세야.”

천연히 돌아앉아,

“여보 도련님, 이제 막 하신 말씀 참말이요 농담이요.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백년연약 맺은 일도 마님과 사또게옵서 시키시던 일이오니까? 웬 핑계요. 광한루에서 잠깐 보고 내 집에 찾아와서 밤 깊어 인적 없는 한밤중에 도련님은 저기 앉고 춘향 나는 여기 앉아 날더러 하신 말씀, 오월 단오 밤에 내 손길 부여잡고 우등통통 밖에 나와 맑은 하늘 천 번이나 가리키며 ㉔ 굳은 언약 어기지 않겠노라고 만 번이나 맹세하기에 내 정녕 믿었더니 결국 가실 때는 특 때에 버리시니 이팔청춘 젊은 것이 낭군 없이 어찌 살꼬. 가을 길고도 깊은 밤 외로운 방에 홀로 님 생각 어찌할꼬. 모질도다 모질도다 도련님이 모질도다. 독하도다 독하도다 서울 양반 독하도다. ㉕ 원수로다 원수로다 존비귀천(尊卑貴賤) 원수로다. 천하에 다정한 게 부부간 정이건만 이렇듯 독한 양반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애고 애고 내 일이야. 여보 도련님 춘향 몸이 천하다고 함부로 버려도 되는 줄로 알지 마오. 박명한 신세 춘향이 입맛 없어 밥 못 먹고 잠이 안 와 잠 못 자면 며칠이나 살 듯하오. 사랑에 병이 들어 애통해하다가 죽게 되면 가련한 내 영혼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될 것이니, 존귀하신 도련님께 그것은 어찌 재앙 아니리오? 사람 대접을 그리 마오. 사람을 대하는 법이 그런 법이 왜 있을꼬. 죽고지고 죽고지고. 애고 애고 설운지고.”

한참 이리 진이 빠지도록 서럽게 울 때 **춘향 어미**는 전후 사정도 모르고,

“애고 저것들 또 사랑싸움이 났구나. 어 참 아니꼽다. 눈구석에 쌍가래뿔 설 일 많이 보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3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춘향 어미’는 춘향에게 닥친 사정을 알고 있다.
- ② ‘사또’는 아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 ③ ‘춘향’은 도련님이 남원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
- ④ ‘모친’은 아들이 춘향을 첩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도련님’은 춘향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5.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감정의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 ② 음성 상징어를 통해 행위를 생동감 있게 그린다.
- ③ 주변 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한다.
- ④ 전기적(傳奇的) 사건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반복적 교차를 통해 이야기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36. ㉑~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욕망의 실현을 가로막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춘향의 의도를 알 수 있다.
- ② ㉒ : 춘향이 도련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③ ㉓ : 춘향의 욕망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다.
- ④ ㉔ : 욕망이 좌절된 것에 대한 춘향의 감정을 알 수 있다.
- ⑤ ㉕ : 욕망 좌절의 원인이 신분 제도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37. ㉔에 나타난 도련님의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① 금상첨화(錦上添花)
-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 ③ 일구이언(一口二言)
- ④ 정저지와(井底之蛙)
- ⑤ 천생연분(天生緣分)

(수능 완성 - 작자 미상, 「홍부전」 // 고1, 2014.09)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린 자식을 데리고 굶다 못하여 형님 처분 바라자고 염치 불구하고 왔사오니 양식이 만일 못 되거든 돈 서 푼만 주시오면 하루라도 살겠나이다.”

놀부 더욱 화를 내어 하는 말이,
 “이놈아, 들어 보아라. 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꿏돈 헐며, 쌀 한 되나 주자 한들 너 주자고 대독에 가득한 걸 떠내며, 의복가지나 주자 한들 너 주자고 행랑것들 벗기며, 찬 밥술이나 주자 한들 너 주자고 마루 아래 청삽사리를 굶기며, 지계미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돼지를 굶기며, 콩 섬이나 주자 한들 큰 농우가 네 필이니 너를 주고 소 굶기랴. 염치없고 체면 없는 놈이로다.”

홍부 하는 말이,
 “아무리 그러실지라도 죽는 동생 살려 주오.”

놀부 화를 버럭 내어 벽력같은 소리로 하인 마당쇠를 부르니 마당쇠가,
 “예”

하고 나오거늘, 놀부 분부하되,
 “이놈아, 뒤 광문 열고 들어가면 저편에 보리 쌓은 더미 있지?”

이때 홍부 그 말 듣고 내심에,
 ‘옳다! 우리 형님이 보리 말이나 주시려나 보다.’

하고 은근히 기꺼하더니, 놀부놈이 마당쇠를 시켜 보리 섬 뒤에 두었던 도깃자루 묶음을 내놓고 손에 맞는 대로 골라잡더니 그만 달려들어 홍부 뒤꼭지를 잔뜩 훔쳐 쥐고 몽둥이로 함부로 치는데, 마치 손 쥔 스님의 비질하듯, 상좌 중이 베풀고 치듯 아주 탕탕 두드리니, 홍부 울며 하는 말이,
 “예고 형님, 이것이 웬일이요? 방약무인(傍若無人) 도적*이도 이에서 성인이요 무거불측(無據不測) 관속*이도 이에서는 군자로다. 우리 형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오? 아니 주면 그만이지지 때리기는 무슨 일이고, 예고 어머니, 나 죽소!”

놀부의 모진 마음 그래도 그치지 아니하고 지끈지끈 함부로 치다가 제 기운에 못 이기어 몽둥이를 내던지고 숨을 헐떡이며,
 “이놈, 내 눈앞에서 뵈지 마라.”

하고 사랑으로 분분히 들어가며 문을 벼락같이 닫으니,
 이때 홍부는 어찌 맛았던지 일신이 느른하여 돌아갈 마음 그지없건만, 그중에도 형수나 보고 가려고 영금영금 기어 부엌 근처로 가니 놀부 아내가 마침 밥을 푸는지라. 홍부가 매 맞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 날 굶은 창자에 밥 냄새 맡더니 오장이 뒤집혀,
 “예고, 형수씨, 밥 한 술만 주오. 이 동생 좀 살려 주오.”

하며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니, 이년 또한 몹쓸 년이라 와락 돌아서며 하는 말이,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를 들어오누?”

하며 밥 푸던 주걱으로 홍부의 바른 뺨을 지끈 때리니, 홍부가 그 뺨 한 번을 맞은 즉슨 두 눈에 불이 화끈하며 정신이 어쩔하다가 뺨을 슬며시 만져 보니 밥이 불따귀에 붙었는지라 일변 입으로 훔쳐 넣으며 하는 말이,
 “아주머니는 뺨을 쳐도 먹여 가며 치시니 감사한 말을 여찌다 하오리까. 수고스럽지마는 이 뺨마저 쳐 주시오, 밥 좀 많이 붙은 주걱으로. 그 밥 갖다가 아이들 구경이나 시키겠소.”

㉠ 이 몹쓸 년이 밥주걱은 놓고 부지깽이로 홍부를 훔쳐 때려 놓으니, 홍부 아프단 말도 못하고 하릴없이 통곡하며 돌아오니 천지가 망망하더라.

(중략)

홍부 아내 생각에 시형 내의 마음을 짐작할지라.
 “그만 두시오, 알겠소. 형님 속도 내가 알고 시아주버니 속도 내가 아오. 돈 닷 냥, 쌀 서 말이 무엇이오. 내게다 그런 말을 하시오?”

하며 자기 남편을 보니 유혈이 낭자하여 얼굴이 모두 붓고 온몸을 만져보니 성한 곳이 바이없으니, 홍부 아내 기가 막히어 땅에 펄쩍 주저앉으며,
 “예고, 이것이 웬일인가, 가기 싫다 하는 가장 내 말 어려워 하시더니 저 모양이 웬일이오, 팔자 그런 이 몹쓸 년 가장 하나 못 섬기고 이런 광경 당하게 하니 잠시인들 살아 무엇 하리. 모질고 악한 양반, 구산같이 쌓인 곡식 누구 주자 아끼어서 저리 몹시 친단 말고.”

홍부의 착한 마음 형의 말은 아니하고,
 “여보 마누라, 슬퍼 마소.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 한다 하니 형님인들 어찌하시나. 우리 양주 품이나 팔아 살아가세.”

홍부 아내 응하고 서로 나서 품을 판다.

용정(春精)*하여 방아 짚기, 술집에 가 술 거르기, 초상난 집 제복 짓기, 사고 있는 집 그릇 닦기, 굶는 집 떡 만들기, 시궁발치 오줌 치기, 해빙하면 나물 캐기, 춘모 갈아 보리 놓기, 온 가지로 품을 팔고, 홍부는 이 월동품 가래질하기, 삼사월에 부침질하기, 일등 전답 무는 갈기, 이 집 저 집 이영 엮기, 날 굶은 날 명석 맺기, 시장 갖에 나무 베기, 무국 주인 역인 서기, 각 읍 주인 샅길 가기, 술밥 먹고 말집 신기, 오 푼 받고 마철 박기, 두 푼 받고 통채 치기, 한 푼 받고 비 매기, 식전이면 마당 쓸기, 이웃집 물 길기, 진주 감영 돈집 지기, 대구 감영 태전 지기, 온 가지로 다하여도 굶기를 밥 먹는 듯 하여 살길이 없는지라.

- 작자 미상, 「홍부전」-

*도적: 춘추시대 노나라의 큰 도적
 *관속: 주나라 무왕의 아우. 무왕이 죽은 뒤 주공을 모함하고 상나라 주의 아들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용정: 곡식을 짚음.

3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놀부는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 ② 놀부의 처는 신분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 ③ 마당쇠는 주인의 의도를 알고 미리 행동하고 있다.
- ④ 홍부의 처는 집에 돌아온 홍부를 보며 자신을 탓하고 있다.
- ⑤ 홍부는 나라의 빈민 구제 방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32. <보기>와 [A]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판소리’는 창자(소리꾼)가 고수와 함께 장단에 맞추어 이야기
기를 창(노래)과 아니리로 엮은 공연 예술이다. 조선 후기 서
민들의 생활을 주로 그려 냈으며, 풍자와 해학이 풍부하다.
서민에서 양반까지 관객층이 폭넓어 이들의 언어가 혼재하며,
이들의 흥미를 반영해 공연 상황에 따라 특정 장면을 축소·
확장하기도 한다. 이 소설은 ‘판소리’가 소설화되어 정착된 것
으로, ‘판소리’의 특징이 드러난다.

- ① 다양한 종류의 품 팔기를 보니, 그 시대 서민들의 삶이 소재가 되었군.
- ② 일정한 음보가 반복되는 것을 보니, 소리 공연인 판소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한자어와 고유어를 동시에 사용한 것을 보니, 판소리가 소설화되면서 해학성이 강화되었겠군.
- ④ 문장의 호흡이 짧은 것을 보니, 이 부분은 판소리 공연에서 창자가 빠른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겠군.
- ⑤ 열거의 방식으로 내용을 서술한 것을 보니, 이 부분은 판소리 공연에서 내용이 줄거나 추가될 수 있었겠군.

33. ㉠의 흥부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상가상(雪上加霜)
- ② 역지사지(易地思之)
-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 ④ 조삼모사(朝三暮四)
- ⑤ 타산지석(他山之石)

(수능 특강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고1, 2015.03)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이 났소, 일이 났소. 아씨님 일이 났소. 사랑에서 일이 났소. 우리 택 좌수님이 들이 되었으니, 보는 바 처음이라. 가중의 이런 변이 세상에 또 있는가.”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대경실색하여,
“애고애고, 이게 웬말이나. 너의 좌수님이 중을 보면 결박하고 약한 형벌 무수하고, 불도를 능멸하며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박대한 죄 없을소냐. 지신(地神)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술하여 하늘이 주신 죄를 인력으로 어이 하리.”
춘단 어미 바빠 불러,
“네가 나가 진위(眞僞)를 알아 오라.”
춘단 어미 바빠 나와 문틈으로 내다보니, ‘네가 옹가다, 네가 옹가다’ 하며 서로 호령하니 언어동정 이목구비 두 좌수 똑같으니 춘단 어미 하는 말이,
“수지오지자옹(誰知鳥之雌雄)*이라, 게 뉘라 알아볼까.”
안으로 들어가며,

“마나님, 소비(小婢)는 알 수가 전혀 없소.”
마누라님 하는 말이,
“너의 택 좌수님은 새로 좌수하여 도포를 급히 다루다가 불뚱이 떨어져서 안자락이 타서 구멍이 있으니 글로 보아 알아 오라.”
춘단 어미 또 나와 사랑문 열뜨리고,
“알 일이 있사오니 도포를 보사이다. 안자락에 불뚱 구멍이 있삽나이다.”
[A] 실용가 나왔으며 도포 자락 펼쳐 보니 분명할새 우리 택 좌수님이라. 허용가 나왔으며,
“에라, 이년, 요망한 년 가소롭다. 남산 봉화 들 제 인경 치고, 사대문 열 제 순라꾼이 제격일다. 그만 표는 나도 있다.”
안자락을 펼쳐 보니, 그도 또한 불구멍이라.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한 거동 보소.
“애고애고 마나님, 내가 보옵소서, 소비는 알 수 없소.”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우리 들이 만날 적에 여필중부 본을 받아 서산에 지는 해를 긴 노로 잡아매고, 살아서 이별 말고 죽어도 한날 죽자 천지로 맹세하고 일월로 증인(證人)터니, 의외에 변이 있으니 꿈이나 생시냐. 이 일이 웬일인가. 도덕 높은 공부자도 양호의 얼을 입었다가 도로 놓여 성인(聖人) 되었으니, 자고로 성인네도 일시근액 있거니와,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내 행실 가지기를 송백같이 굳은 마음 두 낭군이 무삼일꼬.”
이같이 자탄할 제 며늘아가 여쭙오되,
“집안의 변을 보매 무슨 체모 있으리까.”
사랑문을 열고 들어가니 허용가 나왔으며,
“아가, 자세히 들어 보아라. 창원 마산포에서 너희 신행하여 올 제, 기마 10여 필에 온갖 기물 실어 두고, 나는 후배하여 따라올 제 상사마 한 필 뒤동걸어 실은 것이 모두 다 파삭파삭 절단나서, 늦동이 한복판이 떨어져서 쓰지 못하고 벽장에 넣었으니 그도 또한 헛말이나. 너의 애비는 나로다.”
실용가 나왔으며,
“애고 저놈 보소. 내가 할 말 제가 하네. 애고애고 이 일을 어찌하라. 새아가, 내 얼굴 자세히 보아라. 네 시아비는 내가 아니냐.”

며느리 여쭙오되,
“우리 아버님은 두상에 금이 있고 금 가운데 백발이 있사오니 그 표를 보사이다.”
실용가 나왔으며 머리를 풀고 표를 보니, 이 대가리 탄탄하여 송곳으로 찢러도 물 한 점 아니 날래라. 허용가 나왔으며 요술 부려 흰 털을 빼어다가 저의 머리 붙이니, 실용가의 표는 쓸데없고 허용가의 표가 분명하다.
[B] “며늘아가, 내 머리 자세히 보아라.”
하니, 며느리 나왔으며,
“예, 우리 시아버님이요.”
하니, 실용가 갖은 복통(腹痛)하여 머리를 와득와득 두드리며 하는 말이,
“애고애고, 허용가는 제 애비 삼고, 실용가는 구박하네. 기막혀 나 죽겠네. 내 마음 설운 원정 뉘더러 하여 볼까.”

[중략 부분 줄거리] 결국 실용가와 허용가는 동헌에 가서 사또의 판정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가짜로 판정된 실용가는 집에서 쫓겨나 방황을 하다가 산속에서 도사를 만난다.

실용가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 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령하신 도덕하에 제발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는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몹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들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이 가공하고 너의 처자 불쌍한고로 방송(放送)하나니, 돌아가서 개과천선하라.”

하며, 부적을 써 주며 가로되,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하고 인홍불견 간데없거늘, 실용이 절거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담장 안에 흥련화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영산홍아 잘 있더냐, 자산홍아 무사하나. 옛일을 생각하니 각급시이 작비*로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 전혀 없다.

“가소롭다 허용가야, 이제도 네가 옹가라 장담할까?”

하며 들어가니, 마누라 이 거동을 보고 심히 대경실색하여 하는 말이,

“애고애고 좌수님, 저놈 천살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고 들어오니, 이 일을 어찌하리까.”

이러할 즈음에 방에 있던 옹가 간데없고 짙 한 묶음이 놓여 있고, 허용가의 자식들도 문득 허수아비 되니, 가중제인이 박장대소하더라.

좌수가 부인보고 하는 말이,

“마누라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 무수히 낳았으니, 그놈과 한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 환상에 밥도 먹었는가?”

부인이 어처구니없어 뚝뚝부담하고 방 안에 돌아다니며 허용가의 자식 살펴보니, 이리 보아도 허수아비, 저리 보아도 허수아비 떼가 분명하다. 부인이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부끄러워하더라.

도사의 술법을 탄복하여, 옹좌수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여 개과천선하니 그 어짊을 칭찬하더라.

* 수지오지자용: 누가 까마귀의 암컷과 수컷을 구별할 수 있으라는 뜻.

* 각급시이작비: 이제는 옳고 지난날은 그릇되었음을 깨달았다는 뜻.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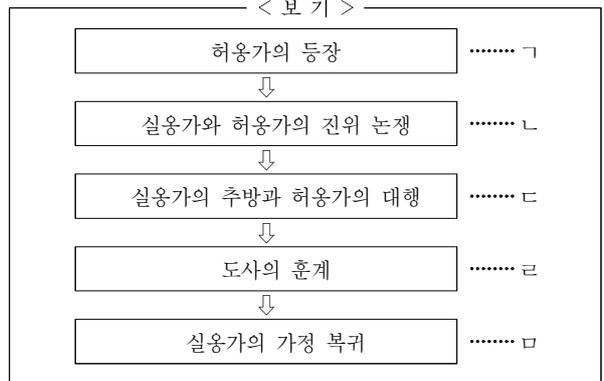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②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면서 서술자를 교체한다.
- ④ 서술자의 목소리가 작중 상황에 직접 드러난다.
- ⑤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전기성이 드러난다.

39.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의복이, [B]에서는 신체가 진위를 가리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진위를 확인하려는 인물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다.
- ③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진위를 가린 결과 실용가가 불리해지고 있다.
- ④ [A]와 [B]에서 모두 실용가는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실용가가 허용가보다 먼저 나서고 있다.

40. <보기>는 윗글의 서사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ㄱ에서 허용가가 등장한 이유는 실용가의 악행 때문이겠군.
- ② ㄴ에서 실용가는 도사가 변신한 허용가와 진위를 가리고 있군.
- ③ ㄷ에서 허용가는 주인 행세를 하며 실용가의 부인과 많은 자식을 낳았겠군.
- ④ ㄹ에서 도사는 실용가의 가족을 고려하여 실용가의 호소를 수용하고 있군.
- ⑤ ㄹ에서 실용가는 선한 인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군.

(수능 특강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고1, 2015.09)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자 분부 들고 춘향 불러 건너갈 때 맵시 있는 방자 녀석, 서왕모가 요지연에 편지 전하던 파랑새같이 이리저리 건너가서,

“여봐라, 이 애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라,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질러 사람의 정신을 놀래느냐.”

“이 애야, 말 마라. 일이 났다.”

“일이라니 무슨 일?”

“사또 자제 도련님이 광한루에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란 명을 내렸다.”

춘향이 화를 내어,

“㉠ 네가 미친 자식이로다.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나.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종달새가 삼씩 까먹듯 빨리 하였나 보다.”

“아니다. 내가 네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내가 그르지 내가 그르냐. 너 그른 내력을 들어 보아라. 계집아이 행실에 그녀를 타려면 네 집 후원 담장 안에 줄을 매고 타는 게 도리에 당연함이라. 광한루 멀지 않고 또한 지금은 녹음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좋은 봄이라. 향기로운 풀은 푸르고, 앞 시냇가 버들은 초록색 휘장을 둘렀고, 뒤 시냇가 버들은 연두색 휘장을 둘러, 한 가지 늘 어지고 또 한 가지 평퍼져 호늘호늘 춤을 춘다. 이 같은 광한루 경치 구경하는데, 그녀를 매고 내가 뛰어 외씨 같은 두 발길로 흰 구름 사이에서 노닐 적에 ㉡ 붉은 치맛자락이 펄펄, 흰 속옷 갈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같은 내 살결이 흰 구름 사이에 희뜩희뜩한다. 도련님이 이를 보시고 너를 부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잔말 말고 건너가자.”

춘향이 대답하되,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뻐이라.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녀를 댕을 뿐 아니라, 설혹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내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방자 별 수 없이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으니 도련님이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인즉 옳도다. ㉢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방자 그 전갈을 가지고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사이에 제 집으로 돌아갔다.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구나. 방자 들어가니,

“너 왜 또 오느냐?”

“황송타.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안 것이 아니다.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여염 처자 불러 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

음이 난다.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 어머니 썩 나 앉아 정신없이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 자 용 룡(龍) 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

춘향이 그제야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광한루로 건너갈 제, ㉣ 대명전(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 걸음으로, 양지(陽地) 마당의 씨암탉 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친천히 건너간다. 월(越)나라 서시(西施)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호늘호늘 건너온다. 도련님 난간에 절만만 비켜서서 그옥이 바라보니 춘향이 건너오는데 광한루 가까이 온지라. 도련님 좋아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하여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얼굴이 빼어나니 청강(淸江)에 노는 학이 설월(雪月)에 비친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이 반쯤 열렸으니 별도 같고 옥도 같다. 연지를 폼은 듯, 자춘빛 치마 고운 태도는 석양에 비치는 안개 같고,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은하수 물결 같다. 고운 걸음 단정히 옮겨 친연히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 있거늘, 통인 불러 말한다.

“앉으라고 일러라.”

춘향이 고운 태도 단정하다. 앉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갖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재계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꾸민 것도 없는 천연한 절대 가인이라.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 붉은 입술 반쯤 여니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40.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향의 모친은 꿈을 근거로 들어 춘향을 설득하고 있다.
- ② 도련님은 춘향의 대답을 통해 춘향의 인물됨을 평가하고 있다.
- ③ 춘향이 집에서 한 행동을 보니 방자가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다.
- ④ 춘향은 두 번째 전갈을 받고서 도련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 ⑤ 방자는 춘향이 한 행실을 들어 문제의 원인을 춘향에게 돌리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속어를 사용하여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② ㉡: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 구체적 내용을 감추는 말을 사용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을 열거하여 인물의 행동을 미화하고 있다.
- ⑤ ㉣: 등장인물의 독백을 통해 상대에 대한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와 [A]를 비교했을 때, [A]에서 부각되는 '춘향'의 가치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방자 놈 말이,
 “추천인지 그넌지 은근한 곳에서 할 것이지, 광한루 가까운 요런 쪽 바라진 산등성 마루에 매고 뛰라더냐? 사또 자제 도련님이 산천경계 구경코자 광한루에 올랐다가, 수풀 사이에 추천하는 네 거동 살펴보고 성화같이 불러오라 분부 지엄하니, 아니 가지는 못하리라.”

춘향이 할 수 없어 삼단같이 훌은 머리 제색으로 집어 꽃고 난이며 봉을 새긴 비단 치마를 섬섬옥수로 잡아 걸쳐 맵시 있게 비껴 섰다. 방자 놈 따라 인적 드문 좁은 길로 행똥똥똥 바삐 걸어 계단 아래에 이르러 문안을 아뢴다.

- ① 주체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 ②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
- ③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 ④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해야 한다.
- ⑤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인고의 자세가 필요하다.

(수능 특강 - 김시습, 「이생규장전」 // 고1, 2016.06)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이생은 우연히 본 최 여인을 사모하게 되고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부모는 크게 노해 이생을 고향으로 쫓아 보내고, 최 여인은 이생과 만나지 못해 상사병에 걸린다. 이에 최 여인의 부모는 이생 부모를 설득해 이생과 최 여인을 혼인시킨다. 그 후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 이생은 간신히 도망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으나, 최 여인은 정조를 지키려다가 흥건적의 손에 죽는다.

한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처가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귄 뿐이었다.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 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을 생각해 보니 완전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 주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 여인이 거기 있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이야기했다.

<중략>

이윽고 이야기가 집안의 재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 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모셔 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자리에 드니 지극한 정이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옛날 개령동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 약간이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란 갔던 노복들도 또한 찾아 들었다.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서 친척과 귀한 손의 길흉사 방문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두서너 해가 지난 어떤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

“제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 왔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메어 울었다. 이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옥황상제께서 이 몸을 빌려 주어 잠시 낭군을 뵈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곡에 맞추어 시를 지어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떼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물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 주리
 피투성이 그 유흔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 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시 한 구절씩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막혀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생도 또한 슬픔을 견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로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써 장사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효성이 지극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 그 후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 서너 달 만에 그도 또한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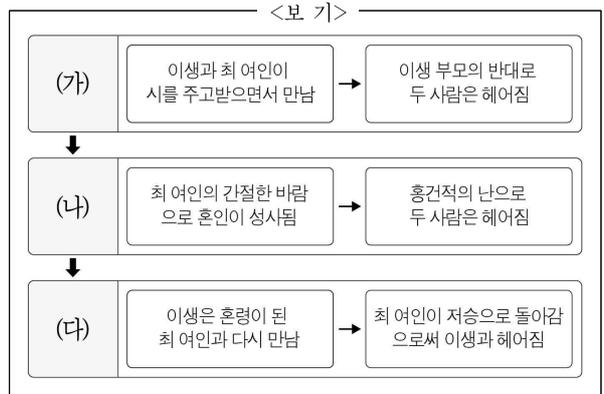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삽입된 시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 간 갈등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서술자의 직접 개입을 통해 반전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통해 사건의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35.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 여인은 이생의 집에서 이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 ② 이생은 최 여인과의 이별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다.
- ③ 이생은 양가 부모님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④ 최 여인은 전쟁 중에 자신을 버린 이생을 오해하고 있다.
- ⑤ 이생은 부모의 유골을 모셔둔 최 여인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36. 윗글에 나타난 주요 사건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다)의 만남은 생사를 초월하여 주인공들의 사랑이 이어진다.
- ② (다)의 헤어짐은 현실에서의 재회를 전제로 주인공들의 사랑이 연기된다.
- ③ (다)의 만남에서는 (가)의 만남과 달리 제3자의 도움으로 주인공들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 ④ (다)의 헤어짐에서는 (나)의 헤어짐과 달리 운명적 요인으로 주인공들의 사랑이 좌절된다.
- ⑤ (가)~(다)는 주인공들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와 끊임없이 갈등하는 과정이다.

37.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 ② 역지사지(易地思之)
-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 ④ 적반하장(賊反荷杖)
- ⑤ 환골탈태(換骨奪胎)

(수능 특강 - 조위한, 「최척전」 // 고2, 2013.03 B형)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남원에 사는 최척과 옥영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하지만, 최척은 전쟁 중 의병으로 징집되어 혼인 날짜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자 옥영의 어머니는 고을의 부자 양생과 옥영을 억지로 혼인시키고자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옥영은 밤에 어머니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말했다.

“최생의 거취는 의병장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생이 자기 마음대로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생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언약을 저버리시니 이보다 옳지 못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제 의지를 꺾으려 하신다면 저는 죽어도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하늘같은 어머니께서도 몰라주시는데 남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어찌 이렇듯 심하게 고집을 부리느냐? 아아 어린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너는 마땅히 이 어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심씨는 딸의 말을 용납하지 않고 더 들을 생각도 없어 곧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에 심씨가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문득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베갯머리까지 세차게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나 딸이 자던 자리를 어루만져 보니 딸이 그 자리에 없었다.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다급히 찾아보니, 옥영이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고 창살 아래 엎드려 있었다. 손발이 모두 차고 숨소리가 점차 희미해졌으며, 호흡만 목구멍 속에서 오락가락 하였다. 심씨는 황망히 목에 매인 수건을 풀고 옥영을 끌어안아 일으켰다. 이때 춘생이 등불을 밝히고 와서 물을 몇 모금 입에 흘려 넣자, 옥영이 겨우 입으로 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옥영이 깨어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너나없이 달려와서 옥영을 구원하였으며, 이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양씨 집안과의 혼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때 최숙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양씨 집안과의 혼사 문제 등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다 알려 주었다. 최척은 바야흐로 옥영에 대한 그리움으로 오래도록 병이 낫지 않고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병과 그리움이 두 배나 더 심해졌다. 의병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최척을 진중(陣中)에서 내보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최척은 며칠 동안 몸을 조리하고 난 뒤에 점차 병이 낫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1월 초하룻날 정진사 집에서 혼례를 치렀다. 아름다운 두 남녀가 서로 합치게 되니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중략)

옥영은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는 것을 아는지라, 처연히 최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인간 세상에는 뜻하지 않은 변고가 있고, 좋은 일은 귀신이 시기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이

나 헤어지고 다시 만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근심스러워 마음이 절로 슬퍼지곤 합니다.”

최척이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여 말했다.

“굽었다가 펴지고 가득 찼다가 텅 비게 되는 것이 천도의 항상된 이치요, 길흉과 회한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겪을 일일 것이요, 만약 불행히 하늘에서 부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슬픈 처지를 한탄하면서 몸과 마음을 케슬리 할 수가 있겠소? 부질없는 근심과 고민으로 즐거운 마음을 해칠 필요는 없소.”

이 이후로 최척과 옥영의 애정은 더욱 돈독해졌으며, 서로를 지음(知音)으로 자처하면서 하루도 떨어져 생활하는 일이 없었다.

정유년 8월에 왜구가 남원을 함락하자 사람들이 모두 피난가 숨었으며, 최척의 가족들도 지리산 연곡사로 피난을 갔다. 최척은 옥영에게 남장(男裝)을 하게 했는데, 못사람에 뒤섞이어서 보는 사람마다 옥영이 여자인 줄을 몰랐다. 지리산으로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자 양식이 다 떨어지고 거의 굶주리게 되었다. 최척은 장정 서너 사람과 함께 양식도 구하고 왜적의 형세도 살펴볼 겸 산에서 내려왔다. 최척 일행은 구레에 이르러 갑자기 적병을 만나게 되었는데 모두 바위 꼭짜기에 몸을 숨겨 붙잡히는 것을 겨우 면했다.

이날 왜적들은 연곡사로 쳐들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갔다. 왜적들이 물러가기를 기다렸다가 간신히 연곡사로 들어가 보니, 시체가 절에 가득히 쌓여 있고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숲 속에서 신음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최척이 달려가 찾아보니, 노인 몇 사람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최척을 보자 통곡하며 말했다.

“적병이 산에 들어와서 삼 일 동안 재물을 약탈하고 인민들을 배어 죽였으며, 아이들과 여자들은 모두 끌고 어제 겨우 섬진강으로 물러갔네. 가족들을 찾고 싶으면 물가에 가서 물어 보게나.”

최척은 하늘을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땅을 치며 피를 토한 뒤, 즉시 섬진강으로 달려갔다.

-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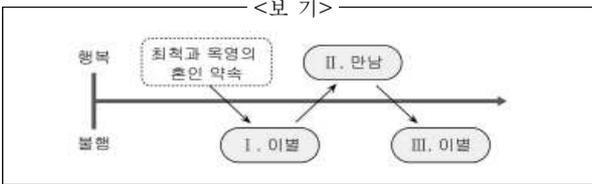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등장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선악의 대립 양상을 중심으로 권선징악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사용하여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삶을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그려냄으로써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3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최척'은 인간의 삶에 즐거움과 슬픔이 같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② '최숙'은 의병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옥영'과 '최척'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심씨'는 혼사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 ④ '옥영'은 어머니와 타협하여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한다.
- ⑤ '춘생'은 '옥영'의 행동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였다.

33. 윗글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에서 II로의 전개는 주인공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 ② I과 III은 전쟁으로 인해 주인공에게 닥친 시련이다.
- ③ I과 III에서 주인공은 주변 인물에게서 정보를 전달받는다.
- ④ II에 나타난 우렁가 III에서 주인공에게 현실로 나타난다.
- ⑤ II에서 주인공의 돈독해진 애정은 III의 비극성을 심화시킨다.

(수능 특강 - 김시습, 「이생규장전」 // 고2, 2013.06 A형)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전 줄거리] 이생은 최 여인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시골로 쫓아 버리자, 최 여인은 상사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된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부모가 두 사람의 혼례를 성사시킨다. 이후 이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지만 흉건적의 난이 일어나 최 여인은 흉건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난이 평정된 후 최 여인은 이생 앞에 나타난다.

그 뒤 이생도 역시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여인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 그러자 피난을 나가 살던 노복들도 역시 제발로 찾아왔다. 이생은 그 이후로는 인간사에 게을러졌다. 그래서 비록 ㉠ 친척과 빈객의 길흉사에 하례하고 조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항상 최 여인의 화답을 구하거나 최 여인이 지은 시에 화답하면서, 금슬이 좋아 화락하게 지냈다. 그렇게 서너 해가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하였다.

㉡ “세 번이나 좋은 시점을 만났습니다만, 세상일은 어긋나기만 하네요. 즐거움을 다 누리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오다니.”

그렇게 말하고는 마침내 흑흑 울음을 터뜨렸다. 이생이 놀라 물었다.

“어찌 이리요?”

여인은 대답하였다.

㉢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천체에서 저와 그대의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또 아무 죄장(罪障)*이 없음을 살피서어, 환체(幻體)*를 빌려 주어, 그대와 함께 잠시 시름으로 애간장을 끓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승 사람을 현혹할 수는 없지요.”

최 여인은 몸종을 시켜 술을 올리게 하였다. 그러고는 옥루춘 한 곡을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전장의 창과 방패가 시야에 가득 어지러운 곳
옥구슬 부서지고 꽃잎은 날며 원앙도 짝 잃었네.
남자하게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물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은 하소연할 사람 없으랴.

[A]

고당에 무산 선녀 한 번 내려온 뒤로
깨졌던 구리 거울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작별하면 둘 다 아득하여
천상과 인간 사이에 소식이 막히리라.

“내 차라리 그대와 함께 황천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하게 홀로 여생을 보전하겠소? 지난번 난리가 있을 뒤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남자하게 흩어져 있었을 때, 만일 남자가 아니었다라면 누가 매장할 수 있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남자의 천성이 효순하고 착하며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이었소. 그러기에 너무도 감격하였소만,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어찌 이길 수 있었겠소? 부디 남자는 인간 세상에 남아서 백 년 뒤에 나와 함께 흠이 됩 이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하였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여러 기(紀)*가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가져 저승 세계의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면, 비단 저에

계만 죄과가 미칠 뿐 아니라 아울러 그대에게도 누(累)가 미칠 것이요. 다만 저의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 유해를 바람과 햇볕에 그냥 드러나 있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여인은 말하였다.

“낭군님, 부디 몸조심 하세요.”

말이 끝나자 여인은 점점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종적도 없게 되었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묘소 곁에 묻었다. 장례를 지낸 뒤에도 @ 이생은 여인을 추모하고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애처로워하고 슬퍼하여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 죄장: 불교에서 수행이나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죄악을 이르는 말.

* 환제: 불교에서 덧없는 인간의 몸뚱이를 이르는 말.

* 기: 해, 세월.

3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③ 긴박한 분위기를 갖은 장면의 전환으로 보여주고 있다.
④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여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입체적으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35. [A]의 기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인물의 심리 상태를 보여 줌.
ㄴ. 사건이 전개될 방향을 암시함.
ㄷ.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함.
ㄹ. 경험한 사건이 주는 교훈을 제시함.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6. ㉠을 들은 이생의 심정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게 웬 청천벽력(靑天霹靂)인가?
② 아내에게 결초보은(結草報恩)해야겠다.
③ 모든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아니겠어?
④ 아내 입장에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겠군.
⑤ 이 상황에서는 비분강개(悲憤慷慨)할 수밖에 없겠네.

3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최 여인을 다시 만난 후 이생이 세상일에는 관심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 이생과 최 여인 사이에 이미 두 번의 이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 최 여인이 이생과 계속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④ ㉣: 부모의 장례를 제차 부탁하는 것을 통해 최 여인의 효심을 짐작할 수 있다.
⑤ ㉤: 최 여인에 대한 이생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수능 완성 - 작자 미상, 「서동지전」 // 고2, 2014.09 B형)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낭군이 이번 갔다가 노기를 띠어 돌아오니 알지 못하겠네. 노중에서 호협 방당자를 만나 혹 봉변이라도 당하셨나이까.”

다람쥐 가로되,

“그런 일은 없으나 그대 말을 듣지 않고 다만 굶어죽을 것을 면할까 하고 가서 서대주 보고 슬픈 소리와 애련한 말로 ‘생각하기를 바라노라.’ 한즉 서대주 대답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여유가 없다.’하고 빈말로 불안한 말만 하는 중 언어 불순하고 여간 재물이 있어 집이 부요함을 드러내고 대접이 경박하니, 설사 본래 모아놓은 것이 없더라도 괴이하지 않을진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재산이 많을 뿐 아니라 요사이 천자께서 내려주신 밤나무가 사만여 주라. 나를 생각하여 시원스레 도와준다면 수백 석 줄 것이니, 많으면 일이 석이요, 적으면 일이 두(斗) 줄 것이어늘 내가 이 같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어찌 통분치 않으리오.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고 옥됨에 죽으려도 죽을 자리가 없는지라. 내 마땅히 산군(山君)에게 송사(訟事)하여 이놈을 잡아다가 재물을 허비토록 엄중한 형벌로써 몸을 괴롭게 하여 나의 분을 풀리라.”

계집 다람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꾸짖어 가로되,

“낭군의 말이 그르도다. 천하 만물이 세상에 나매 신의를 으뜸으로 삼나니, 서대주는 본래 우리와 향렬이 남과 다름이 없고, 하물며 내의를 상통함도 없으되 다만 한 번의 만남을 생각하고 다소간 곡식을 쾌히 허락하여 주었으니 서대주가 낭군 대접함이 옛날 주공(周公)이 일반(一飯)의 삼토포(三吐哺)하고, 일목(一沐)에 삼악발(三握髮)*보다 더하거늘, 한 번도 치하함이 없다가 무슨 면목으로 또 구활함을 청하매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오히려 노함도 신의가 없는 일이거늘, 하물며 포악한 마음을 발하여 은혜 값을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관청에 송사를 이르고자 하니, 이는 이른바 적반하장(賊反荷杖)이요, 은혜를 원수로

값음이라. 낭군이 만일 송사코자 할진대 서대주의 죄상(罪狀)을 무엇으로 말하고자 하느냐. 옛말에 일렀으되 지은(知恩)이면 보은(報恩)이요, 지지(知之)면 불태(不怠)라* 하니 원컨대 낭군은 고서를 읽었을진대 소학(小學)을 익히 알리라. 다시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 은혜 갚기를 힘쓰고 거친 말을 하는 마음을 버릴지라. 서대주는 본디 관후장자(寬厚長者)*라 반드시 후일에 낭군을 위하여 사례할 날이 있으리니 비록 천한 여자의 말이나 깊이 살펴서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다람쥐 듣기를 마치고 크게 노하여 가로되,

“이 같은 천한 계집이 나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계집이 마땅히 장부가 욕을 입음을 분히 여김이 옳거늘 오히려 서대주를 관후장자라 일컫고 나더러 포악하다 꾸짖으니 이 내 형세 곤궁함을 보고 배반할 마음을 두어 서대주를 얻고자 함이라. 예로부터 부창부수(夫唱婦隨)는 남편의 정이요, 여필종부(女必從夫)는 부부의 의이늘 부귀를 따라 탄 마음을 들진대, 갈려면 빨리 가고 머뭇거리지 말라.”

[중간 줄거리: 다람쥐는 서대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의 글을 써서 백호산군에게 올린다. 백호산군은 송사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서대주를 잡아오라고 오소리와 너구리에게 명한다.]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박한지라, 서대주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는 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주더러 왈,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주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오.”

장자(長子) 쥐 왈,

“오 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 마는 성인(聖人)도 융통성이 있나니 원컨대 오 별감은 두 번 살피라.”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주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 쥐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에 뇌물을 받으려면 툭툭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에 술 마시고 놀며 희롱하리오. 관령이 엄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한 잔의 술에 팔려 형장(刑杖)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수풀 사이에 앉아 종시 들어가지 않는지라. 서대주 이 말을 듣고 오소리더러 너구리를 청하라 권하며, 오소리 나아가 너구리를 이끌어 가로되,

“서대주 이같이 간청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하리오. 잠깐

들어가 동정을 봄이 좋도다.”

너구리 가로되,

“그러면 전례(錢禮)*는 어찌한다 하느냐.”

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이르니, 너구리 그제야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각이 굉장한지라. 전각에 올라 서대주와 더불어 좌정 후에 다람쥐 송사한 일을 두어 마디 주고 받더니 얼마 안 되어 안에서 술과 안주가 나오는 지라. 잔을 잡아 서로 권할새 수십 배를 지난 후에, 장자 쥐 좋은 그릇에 황금 스무 냥을 담아 서대주 앞에 드리니, 서대주 황금을 가져다 오소리 앞으로 밀어놓으며 가로되,

“이것이 대접하는 예는 아니나 서로 정을 표할 것이 없으며 마음에 심히 무정(無情)한고로 소소한 물건으로 옛정을 표하나니 두 분 별감은 혐의치 말고 나의 적은 정성을 거두소서.”

오소리 웃으며 왈,

“서대주의 관대함에 감사하던 중 이같이 후의(厚意)를 끼치시니 받는 것이 온당치 못하오나 감히 물리치지 못할지라. 그러나 서대주는 조금도 염려치 말고 다람쥐와 결송(決訟)케 하면 내일 재판할 때에 우리 둘이 집행(執杖)할 터이오니 어찌 다람쥐를 중죄(重罪)하여 서대주의 분풀이를 못하리오.”

하고 인하여 서대주와 더불어 떠나더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

* 일반(一飯)의 ~ 삼악발(三握髮): 민심을 모으고 보살피기에 잠시도 편안함 없이 정성을 다하는 것을 뜻함.

* 지은(知恩)이면 ~ 불태(不怠)라: 은혜를 알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그것을 안다면 게을리 하지 말라.

* 관후장자(寬厚長者): 마음이 후덕하고 너그러우며 절절한 사람.

* 전례(錢禮): 돈을 뇌물로 주는 일.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로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고백적 어조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람쥐와 계집 다람쥐의 서대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 ② 다람쥐는 서대주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송사를 벌였다.
- ③ 다람쥐와 서대주는 평소 친분을 쌓아온 관계는 아니었다.
- ④ 서대주는 다람쥐의 말을 듣고 쾌히 곡식을 나누어 준 적이 있다.
- ⑤ 오소리와 너구리는 백호산군의 명령을 받아 서대주를 잡으러 갔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에는 우의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풍자하는 우화 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유통되었다. 이는 근대적 가치관의 태동으로 빈부의 문제나 봉건적 가치관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조선 후기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에 우화 소설만큼 적절한 장르도 없었기 때문이다.

- ① 아내를 우박지르는 다람쥐를 통해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군.
② 다람쥐와 서대주의 관계를 통해 빈부 문제가 당시에 갈등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군.
③ 다람쥐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하는 계집 다람쥐를 통해 새로운 근대적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군.
④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얻으려는 너구리를 통해 부정이 심했던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군.
⑤ 아버지의 부정행위를 금전으로 해결하려는 장자 쥐를 통해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37. ㉠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난망(刻骨難忘) ② 누란지위(累卵之危)
③ 분기탱천(憤氣撐天) ④ 오매불망(寤寐不忘)
⑤ 전전공공(戰戰兢兢)

(수능 특강 - 작자 미상, 「황새결승」 // 고2, 2016.09 B형)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시골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수시로 횡포를 부리더니, 어느 날은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위협한다. 그러자 부자는 서울 형조에 송사를 제기하지만 친척이 미리 관원들에게 뇌물을 준다. 부자는 결국 재판에 지게 되어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

부자 생각하되,
'내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려 하면 반드시 관전(官前) 발악(發惡)이라 하여 뒤엎어 잡고 법대로 할 양이면 청 듣고 송사도 지게 만드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무지한 사령 놈들이 만일 함부로 두드리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어혈(瘀血)만 될 것이니

어찌할꼬.'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저 송사를 지고 가기는 차마 분하고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하여 재판관을 뚫어지게 치밀어 보다가 문득 생각하되,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 마디를 꾸며 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만 하면 무안이나 보리라.'
하고, 다시 일어서 계단 아래에 가까이 앉으며 하는 말이,
"소인이 천 리에 올라와 송사는 지고 가옵거니와 들음직한 [이야기] 한 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관원이 이 말을 듣고 가장 우습게 여기나 평소애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고로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가 하여 듣고자 하나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아니하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들이 보는 눈이 걱정되는지라. 거짓 꾸짖는 분부로 일러하는 말이,
"네 본디 시골에 있어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관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 못한 말로되, 네 원이나 풀어 줄 것이니 무슨 말인고 아뢰어라."

[중간 부분의 줄거리] 이렇게 시작된 부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피꼬리, 삐죽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최고의 소리라고 다투다가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제기한다. 그런데 소리에 자신이 없었던 따오기는 송사에서 이기기 위해 황새에게 미리 청탁을 한다. 날이 밝아 세 짐승이 황새 앞에서 소리를 시작한다.

피꼬리 먼저 날아들어 소리를 한번 곱게 하고 아뢰되,
"소인은 바야흐로 봄이 한창 화창한 좋은 시절에 이화도화(梨花桃花) 만발하고, 앞내의 버들빛은 초록장 드리운 듯, 뒷내의 버들빛은 유록장 드리운 듯, 금빛 같은 이내 몸이 날아들고 떠들면서 흥에 겨워 청아(清雅)하고 옥을 깨뜨릴 만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춘풍결에 흠날리며 봄의 석 달 동안 보낼 적에 뉘 아니 아름답게 여기리이까."

황새 한 번 들으매 과연 제 말과 같아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러나 이제 제 소리를 좋다 하면 따오기에게 청 받은 뇌물을 도로 줄 것이요, 좋지 못하다 한즉 내 공정치 못한 판결로 정체가 손상할지라. 만나절이나 깊이 생각한 끝에 판결하여 이르되,

┌ "네 들어라. 당시(唐詩)에 타기황앵아(打起黃鶯兒) 막고 [A] 지상제(莫教枝上啼)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아름다우나 애잔하여 쓸데없도다."

피꼬리 짐작히 물러 나올 새, 또 삐죽새 들어와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묘하게 하여 아뢰되,

"소인은 녹수청산(綠水靑山) 깊은 곳에 만학천봉(萬壑千峯) 기이하고 안개 피어 구름 되며, 구름이 걷히고 많은 신기한 봉우리로 별세계가 펼쳐졌는데 만장폭포 흘러내려 수정림을 드리운 듯 송풍(松風)은 소슬하고 오동추야 밝은 달에 이내 소리 만첩청산의 아름다운 새 소리가 되오리니 뉘 아니 반겨하리이까."

황새 듣고 여러모로 생각해 본 후 판결하되,
"월락자규제(月落子規啼) 초국천일애(楚國千日愛)라 하였

으니, 네 소리 비록 깨끗하나 아주 어려웠던 옛날의 일을 떠오르게 하니, 가히 불쌍하도다.”

하니, 삐죽새 또한 부끄러워하며 물러나거늘, 그제야 따오기가 날아들어 소리를 하고자 하되, 저보다 나은 소리도 벌써 지고 물러나거늘 어찌할꼬 하며 차마 남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나, 그 황새에게 약 먹임을 믿고 고개를 나직이 하여 한번 소리를 주하며 아뢰되,

“소인의 소리는 다만 따옥성이웁고 달리 풀쳐 고향 일 없사오니 사또 처분만 바라고 있나이다.”

하되, 황새놈이 그 소리를 듣고 두 무릎을 탕탕 치며 좋아하며 이른 말이,

“쾌재(快哉)며 장자(長者)로다. 화난 감정이 일시에 터져 나와서 큰 소리로 꾸짖음은 옛날 황장군(黃將軍)의 위풍이요, 장관교(長坂橋) 다리 위에 백만 군병 물리치던 장익덕의 호룡이로소이다. 네 소리 가장 웅장하니 짐짓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하고,

“이렇듯이 처결하여 따옥성을 상성(上聲)으로 처결하여 주오니, 그런 짐승이라도 너물을 먹은즉 잘못 판결하여 그 피꼬리와 삐죽새에게 못할 노릇 하였으니 어찌 화가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 하오리이까. 이리하온 짐승들도 물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잘 하기로 그놈을 개아들 개자식이라 하였으니, 이제 서울 법관도 여차하오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으며 부질없는 말하여 쓸데없으니 이제 물러가나이다.”

하니, 형조 관원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 가장 부끄러워하더라.
- 작자 미상, 「황새결승」 -

* 타기황앵아 막고지상제 : ‘피꼬리를 날려 보내어 가지 위에서 울게 하지 마라.’는 뜻으로 전쟁으로 헤어진 입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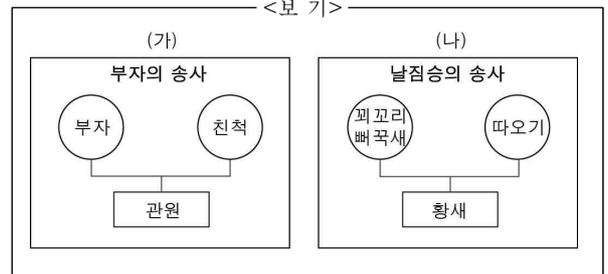
* 월탁자규제 초국천일애 : ‘달이 지고 두견이 우니 초나라 천일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암시함.

3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자’는 송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분해하였군.
- ② ‘관원’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군.
- ③ ‘황새’는 ‘따오기’에게 받은 너물 때문에 송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군.
- ④ ‘따오기’는 자기 소리를 자랑하기보다는 ‘황새’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군.
- ⑤ ‘피꼬리’는 자신의 소리를 누구든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군.

37. 윗글에 나타난 송사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친척의 부당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 ② (가)를 통해 (나)의 판결 이유가 밝혀지게 된다.
- ③ (가)의 결과는 부자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가)에서 송사의 원인은 ‘재산’이고 (나)에서는 ‘최고의 소리’이다.
- ⑤ (가)와 (나) 모두 청탁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8. ‘부자’가 [이야기]를 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원들에게 다른 송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 ② 무식한 관원에게 자신의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
- ③ 비리와 관련된 관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 ④ 예상과 다른 판결에 대해 관원들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 ⑤ 자신의 패배로 끝난 송사로 인해 잃게 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39. [A]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한다고 할 때,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황새는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의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각주구검(刻舟求劍)
- ④ 배은망덕(背恩忘德)
- ⑤ 타산지석(他山之石)

[수능 특강 - 조위한, 「최척전」 // 고3, 2013.03 A형]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남원에 살았던 최척과 옥영 사이에는 만아들 몽석이 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 다.

옥영은 **돈우(頓于)**라는 왜병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갔다. 돈우는 늙은 일본 병사로, 부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전쟁 전에는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노를 잘 저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왜장 소서행장이 뱃사공의 우두머리로 삼아 조선에 데려온 것이었다. 돈우는 영리한 옥영을 사랑하여 도망치지 않도록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 하였다. 그러나 옥영이 여자인 줄은 끝내 몰랐다. 옥영은 이미 삶에 뜻을 잃었기에 여러 번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이 발견하고 구해주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륙불(丈六佛)***이 옥영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이다. 뒤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너는 죽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

옥영은 잠에서 깨어나 그 꿈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다시 삶에 희망을 갖게 된 옥영은 억지로라도 먹으며 힘을 내고자 하였다. 돈우의 집은 일본 나고야(名古屋)에 있었는데 그 아내는 늙고 딸은 어렸으며, 다른 남자 가족은 없었다. 돈우는 옥영을 집 안에만 있게 하고, 바깥으로는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옥영은 자신이 남자인 체하고 있었기에 거짓으로 말했다.

“저는 본디 몸이 작은 데다가 약골(弱骨)이라 병이 많습니 다. 그래서 조선에 있을 때에도 장정들이 하는 일은 잘하지 못하고, 다만 바느질이나 음식 만드는 일을 주로 해 왔습니 다.”

이 말을 들은 돈우는 옥영을 더욱 불쌍히 여기고 잘 보살 피주었다. 그리고 옥영에게 사간(沙干)이라는 새 이름을 지 어주었다. 전쟁이 끝나고 돈우는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지방 일대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옥영에게는 배일을 돕게 하였다.

[이때] 최척은 중국 소흥부*에 살고 있었는데, **여유문**과 의 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은 자기 누이동생과 최척을 맺어 주려고도 했으나 최척이 끝내 사양하였다.

“저는 온 집안이 왜적에게 변을 당해 아버지와 아내의 생사(生死)도 모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상복을 벗을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어찌 편안하게 아내를 얻겠습니까?”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의롭게 여기고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들어 죽었다. 또다시 ① **의탁할 곳이 막막하게 된** 최척은 강호(江湖)를 떠돌며 두루 명승지를 유람하였다. 용문과 우혈을 찾아보고 동정호를 유람하고 악양루와 고소대에도 올라보았다. 이렇듯 중국의 유명한 산과 강을 다니며 노래 부르고 시를 읊조리며 구름과 물 사이를 배회하다 보니 최척에게는 어느덧 속세를 떠난 듯한 풍모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최척은 해섬도

사 왕용이라는 사람에 대해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청성산*이란 곳에 은거하며, 금련단*을 만들고 대낮에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신비한 재주가 있다고 하였다. 최척은 세상에 뜻을 버리고 촉(蜀)의 땅으로 찾아가 신선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마음먹었다. 마침 **주우(朱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號)는 학천(鶴川)이고, 집이 항주 용금문 안에 있었다. 그는 경전과 역사서를 많이 읽어 모르는 것이 없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며 살고 있었다. 또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로운 기상이 있었다. 최척과 예전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최척이 촉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가지고 찾아왔다. 반쯤 취했을 즈음, 주우가 먼저 최척에게 말했다.

“여보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들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고금천하(古今天下)를 통틀어 본들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환약이나 먹고 굶주림을 견디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산 귀신과 이웃이 되려 하는가? 차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오나라와 월나라를 오가면서 비단과 차를 팔며 남은 생애를 즐기는 건 어떠한가? 이 또한 세상을 통달하는 한 방법일 걸세.”

주우의 말에 최척은 마음이 상쾌해지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1600년 봄, 최척은 주우를 따라 상선을 타고 무역을 하다가 안남* 어느 지역에 배를 정박하게 되었다. 이때 일본 배 십여척이 같은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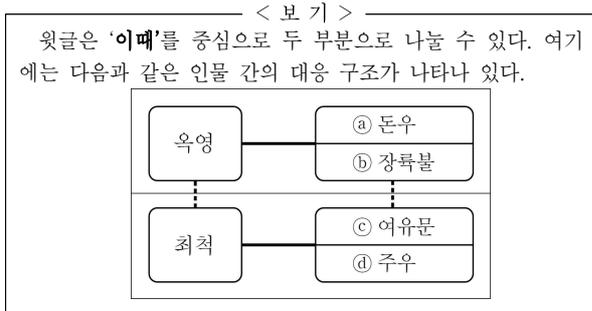
- 조위한, 「최척전」 -

- * 장륙불: 일 장 육 척의 불상.
- * 소흥부: 중국 절강성에 위치.
- * 청성산: 중국 사천성에 있는 도교의 성지.
- * 금련단: 장생불사(長生不死)의 황금 환약.
- * 안남: 지금의 베트남.

37. 위글의 인물이 이동한 경로를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	이동 경로
옥영	일본 나고야에 머무름. ①
	→ 중국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다님. ②
최척	중국 소흥부에 머무름. ③
	→ 동정호, 악양루 등의 명소를 들름. ④
	→ 청성산에 들어감. 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①, ②가 지닌 품성은 옥영과 최척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내기에 적절한 인물 설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옥영이 ①에게 ‘남자인 체’하는 것과 최척이 ③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이후에 전개될 사건과 연관이 있겠군.
- ③ <보기>에서 설명한 구성은 전쟁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 옥영과 최척의 삶을 함께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④ ‘삶에 뜻을 잃은’ 옥영과 ‘세상에 뜻을 버린’ 최척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①과 ②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군.
- ⑤ <보기>에서 설명한 대응 구조는 옥영과 최척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공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군.

39 ㉠과 같은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사고무친(四顧無親) | ② 다기망양(多岐亡羊) |
|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 ④ 좌고우면(左顧右盼) |
| ⑤ 호사다마(好事多魔) | |

40 [A]에 드러난 ‘주우’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실리를 감추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체험을 들려주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상대방의 동조를 구하고 있다.
- ④ 윤리적 명분을 들어 상대방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수능 특강 - 작자 미상, 「적벽가」 // 고3, 2013.07 B형)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공명은 조조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는 관공이 혹시 조조를 놓아주지 않을까 염려한다. 관공은 목숨을 걸고 조조를 꼭 잡아오겠다는 군령장을 쓰고 조조를 잡으러 떠난다. 쫓기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공에게 잡히는데, 조조는 과거 관공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었다.

[아나리]

칼을 번쩍 빼어 들고 조조 앞으로 바싹 달려드니 조조가 깜짝 놀래 목을 딱 움추리니 관공이 빙긋이 웃으며,

“웃깃으로 내 청룡도를 피한단 말이나.”

“글쎄요, 그러기에 장군님은 제발 가까이 서지 마옵소서.”

“네 말이 날다려 유정타 허며 어찌 가까이 서지는 말라냐고.”

“글쎄요, 장군님은 유정하나 청룡도는 무정하여 고정을 베일까 염려로소이다.”

관공이 웃으시며 조조의 지기(志氣)를 떠보려고 청룡도를 높이 들어 조조 목을 베어낼 듯,

“검여두이혼인(劍與頭而婚姻)하면 생기자유혈(生其子流血)이라. 네 목에 피를 내어 내 칼을 한 번 씻으랴 함이로다.”

목을 넘겨 땅을 킁 찌르니 조조 정신 아찔해야 군사들을 돌아보며,

“야들아 청룡도가 잘 든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구나. 아프잖게 잘 도려 가신다. 내 목 있나 좀 보라.”

관공이 웃으시며,

“목 없으면 죽었거늘 죽은 조조도 말을 하느냐.”

“예. 그는 정신이 좋습기로 말은 겨우 하거니와 혼은 벌써 피난간 지 오래로소이다.”

관공은 본래 조조의 은혜를 입은지라 조조를 놓을까 말까 망설이며 결정을 못하고 있던 차에,

[자진모리]

주창이 여짜오되,

“장군님은 어찌하여 첫 칼에 베일 조조 살려 두려 하시는지. 옛 일을 모르시오. 강동의 모진 범여 함양을 파한 후 홍문연 앓은 패공 무심히 거저 놓아 항장(項將)의 날랜 칼이 쓸 곳이 없었고* 계명산 추야월에 장량(張良)의 옥통소 한 곡조 슬피 불어 팔천병 흘었으니 오강풍랑 자문사(自刎死)라.* 하물며 조조는 처세에 능하고, 난세에 간웅이라. 장군이 만일 놓아 주면 소장이 잡으리다.”

별안간 달려들어 조조 목살을 꼭 잡으며,

“왕의 목숨이 주창의 손에 달렸도다. 내 손에 달린 목숨 네 어디로 피할소냐.”

넙다 잡아끄니 조조 놀래 벌벌 떨며,

“여보 주 별감(周別監) 술 많이 받아 드릴 테니 제발 날 좀

뇌주시오.”
관공이 웃으시며,
“아서라 아서라 그리 마라. 어디 차마 보겠느냐. 목숨일랑 끊지 말고 사로잡아 가자.”
좌우에 제장군졸을 한편으로 갈라 세우고 관공이 말머리를 돌리실 제 조조가 급히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아난지라. 관공이 거짓 분노하며,
“내 분부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달아나니 그 죄로 죽어봐라.”

[중모리]

조조 듣고 말 아래 뚝 떨어지니 장졸들이 황겁하여 장군 말 아래 가 두 손 합장 비는디 사람의 인륜에 못 붙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전 비나이다. 살려주소 살려주소 우리 승상 살려주소. 우리 승상 살려주면 높고 높은 장군 은혜 본국 천리 돌아가서 호호 만세 하오리다.”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나 죽기는 설잡으나 가냘픈 너희 모습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풍파에 곤한 신세 고향 가는 길에 장군님을 만났으니 가냘픈 우리 모습 설마 살려 주시제 죽일소나.”

[B]

관공이 꾸짖어 왈,
“이 놈 조조 들어보아라. 내 너를 잡으러 올 때, 군령장에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 놓고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할까.”
조조가 비는 말이,
“현덕과 공명 선생이 장군님 아시기를 오른팔로 믿시오니 초수(草獸)같은 이 몸 조조 아니 잡아 가드래도 죽이지는 않으리다. 장군님 타신 말과 청룡도에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하오.”
관공이 감심하여 조조를 놓아주고 말을 돌려 돌아가니 세 인이 노래를 허되, ‘슬겁구나, 슬겁구나.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가 살아가니 천고에 늠름한 대장부는 관공인가 하노라.’

[아니리]

관공은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전 엮드려 왈,
“용렬(庸劣)한 관모는 조조를 잡고도 놓아 주었사오니 의율시 행(依律施行) 하옵소서.”
공명이 내려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 장군을 그 곳에 보냈으니 그 일을 뉘 알리요.”

[옛중모리]

관공은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를 살려주니 인후(仁厚)하신 관공 ㉠이름 천추에 빛나더라. 그 뒤야 뉘가 알리. 더질 더질.
-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

* 강동의~없었고: 한나라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않고 살려 준 고사.

* 계명산~자문사라: 한나라의 전략가인 장량이 고도의 심리전으로 초나라 군 대를 해산시켜 항우를 자결에 이르게 한 고사.

31. 윗글을 연극으로 만든다고 할 때,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망의 덧에 걸려 쓰러지며
- ② 의리를 지키려 균율을 어기고
- ③ 백성들의 울음소리 하늘에 닿아
- ④ 패잔병의 슬픈 노래 진장을 울리며
- ⑤ 권력 투쟁에서 밀려 쓸쓸히 사라지고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인물의 과장된 행동이 나타나 있다.
- ② [A]는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③ [B]는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어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에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⑤ [A]와 [B]에는 모두 관습적 표현을 통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 있다.

3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쓴 ‘작품 속 인물 탐구’에 대한 보고서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벽가 인물 탐구〉	
 <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조’와 대면하여 호통을 치는 모습에서 위엄 있는 장군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① ○ ‘조조’에게 도움 받은 과거를 잊지 않고 ‘조조’를 놓아주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②
 <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지에 몰려서도 자신의 장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에서 위선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③ ○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 적장에게 빌고 있는 모습에서 비굴한 패장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④
 <주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설이는 ‘관공’과 달리 적장을 제거하려는 단호한 모습에서 원칙을 고수하려는 면모가 드러난다. …… ⑤

34. ㉠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방백세(流芳百世)
- ② 학수고대(鶴首苦待)
- ③ 금의환향(錦衣還鄉)
- ④ 타산지석(他山之石)
- ⑤ 상전벽해(桑田碧海)

(수능 특강 - 작자 미상, 「웅고집전」 // 고3, 2013.10 B형)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늙은 모친 병들어 누웠는데, 닭 한 마리, 약 한 첩도 봉양은 아니하고 잘 먹이지 아니하니, 냉들방에 홀로 누워 서럽게 울며 하는 말이,

“너를 낳아 길러낼 제 애지중지 나의 마음 보옥같이 사랑하여 어루만져 하는 말이 ㉠ ‘은자동아 금자동아 무하자태 백옥동아 천지만물 일월동아 아국사랑 간간동아 하늘같이 어지어라 땅같이 너를가라. 금을 준들 너를 사랴. 천상 인간 무가보(無價寶)는 너 하나뿐이로다.’ 이같이 사랑하여 너 하나를 길렀더니 천지간에 이런 공을 모르느냐. 옛날 왕상(王祥)이는 얼음 속에 잉어 낚아 부모 봉양 하였으니 그렇지는 못하여도 불효는 면하여라.”

불측한 고집이놈이 어미 말에 대답하되,
“진시황 같은 이도 만리장성 쌓아 두고 아방궁 높이 지어 삼천 궁녀 호위를 받으며 천년이나 사셨더니, 일분총(一墳塚)을 못 면하여 죽어 있고 백전백승 초패왕도 오강에 죽어 있고, 안연 같은 현학사도 삼십에 조사(早死)커든 오래 살아 무엇하리. 옛글에 인간칠십(人間七十) 고래희(古來稀)라 하였으니, 팔십 당년 우리 모친 오래 살아 쓸데없네. 오래 살수록 욕됨이 많으니 우리 모친 다투어 단명하리. 도척이 같은 몫쓸 놈도 천추에 유명커든 무슨 시비 말할슨가.”

(중략)

“애고 애고 저놈 보소. 제가 나인 체하고 친연히 앉아 좋은 말로 그렇듯 말하네. 네가 옹가냐, 내가 옹가지.”

하고 서로 다툼 적에 김 별감 하는 말이,

“양 옹이 옹옹하니 이 옹 저 옹을 분별하지 못하겠네. 판가에 송사나 하여 보소.”

양 옹이 이 말을 듣고 서로 불들고 관청에 들어가는데, 얼굴도 같고 의복도 같고 머리 가슴 팔뚝 다리까지 같았으니, 그동안의 진위를 누가 알리오.

실용이 먼저 아뢰되,

“민(民)이 옹당촌에서 대대로 살아왔사온데 천만의의 알지 못하는 허인이 민의 행색같이 하고 들어와 민의 집을 제집이라 하고, 민의 가족을 제 가족이라 하오니 세상에 이러한 흉한 일이 어데 또 있사오리까? 명명하신 성주는 이놈을 엄문하와 사리를 분명히 밝혀 주옵소서.”

허옹가 또 아뢰되,

“민이 아뢰 말씀은 저놈이 다하였사오니 민은 아뢰 말씀 없사오니 명백하신 성주는 통촉하시어 허실을 가려 주옵소서. 인제 죽사와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사또 분부하되,

“양 옹은 서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하고, 육방 하인이며 내빈 행객 모두 살피되 전혀 알 수 없는지라.

형방이 아뢰되,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지이다.”

허허, 그 말을 옳다 하고 호적을 담당하는 관리를 불러 양 옹의 호적을 들을 제 실용이 나왔으며 아뢰되,

“민의 애비 이름은 옹송이웁고 조부는 만송이로소이다.”

사또 왈,

“그놈 호적은 옹송만송하다. 알 수 없으니 저 백성 아뢰라.”

(중략)

사또 듣기를 다하매 왈,

“그대가 참 옹 좌수라.”

하고 당상에 올려 앉히고 기생을 불러

“이 양반께 술 권하여라.”

일색 기생 술을 들고 권주가 화답하되,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한무제(漢武帝) 승로반(承露盤)에 이슬 받은 것이오니, 쓰다 다나 잡수시오.”

옹 좌수 흥을 내어 술잔을 받아 들고 하는 말이,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저 놈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등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다. 그러나 성주 덕택에 흑백을 가려 주옵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한번 민의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 한잔 대접하오리다.”

“그는 염려 말게. 처치하여 쯤세.”

실용을 불러 분부하되,

“네가 흥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 탈취하려하니 네 죄상은 마땅히 법에 따라 귀양을 보낼 것이로되 가버어 처벌하니 바빠 어서 물리치라.”

대곤 삼십 도를 매우 쳐서 엄문죄목하되,

“인제도 옹가라 하겠느냐?”

실용이 생각하되 만일 옹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듯 하니,

“㉡ 예, 옹가 아니요.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전이 호령하여,

“관원을 시켜 저놈을 마을 밖으로 내쫓게 하리라.”

하니 벌떼 같은 군노 사령 일시에 달려들어 옹가 상투를 잡아 휘휘 돌려 내쫓으니 실용이 하릴없이 거리에서 빌어먹여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대성통곡 우는 말이,

“답답하다 내 일이야. 꿈이나 생시냐. 어찌하여야 옹단 말이나. 뜻밖에 일어난 횡액이로다.”

무지한 고집이놈 인제는 개과하여 애통해 하는 말이,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거니와 당상 학발(堂上鶴髮) 우리 모친 다시 봉양하여지고. 어여쁜 우리 아내 월하(月下)의 인연 맺어 일월(日月)로 본증(本證) 삼고 천지로 맹세하여 백년 종사 하겠더니 독수공방 적막한데 임 없이 홀로 누워 전전만측 잠 못 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 슬하의 어린 새끼 금옥같이 사랑하여 어를 제 ㉢ ‘십마동동 내 사랑 후두독 후두독 얼마 아싸 눈에 압압’ 나 죽겠네. 아메도 꿈인가 생신가. 꿈이거든 깨이거라.”

허옹가 거동 보소. 승소하고 돌아올 제 의기양양하는 거동 그야말로 제법이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손춤 치며 노랫가락 좋을시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조롱하여 하는 말이,

“허허 흉악한 놈, 하마터면 우리 고운 마누라 빼앗길 뻔하였다.”

- 작자미상, 「웅고집전」 -

옥의 진위를 아는 지혜를 마음으로 더욱 탄복하고 몸소 창밖에 나아와 이씨와 선옥을 데리고 들어와 즉시 **이씨로 수양딸을 정**하였다. 이씨가 부녀지례(父女之禮)로 보니 어사가 선옥과 이씨를 가까이 앉히고 이씨더러 물었다.

“여아는 어찌 가부의 진가를 알았느냐?”

이씨가 대답하였다.

“가부의 **앞니**에는 참깨만한 **푸른 점**이 있사오매 이로써 안 것이요, 다른 데는 저 놈과 과연 추호도 차이가 없도소이다.”

어사가 그 영민함을 차탄하고 선옥에게 일러,

“너의 부인이 나의 여아가 되었으니 너는 곧 나의 사위라. 너희 둘이 이제 만났으니 각각 정회도 퍼려니와 우선 네가 **절**에서 떠난 연고를 자세히 하여 피차 의혹되는 마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니, 선옥이 주저하고 즉시 말을 못하였다. 이씨가 말하였다.

“장부가 할 말이면 반드시 실상(實相)으로 할 것이거늘 어찌 이같이 주저하느냐?”

선옥이 그제야 이씨를 향하여 말하였다.

“내 모년월일야(某年月日夜)에 중의 의관을 바꾸어 입고 내려와 그대의 **저소**에 이르러 보니 그대 어떤 의관한 남자와 더불어 회통하는 그림자가 창밖에 비쳤으며, 매우 분노하여 들어가 그대와 그 놈을 모두 죽이고자 하다가 도로 생각하니, ‘만일 그러하면 누명이 나타나 나의 집안의 명성이 더러워질 것이라. 차라리 내 스스로 죽어 통한 모양을 아니 보리라.’하고 **강변**에 나아가 굴원(屈原)을 찾고자 하다가 차마 물에 들지 못하고 도로 절을 향하고 오다가 또 생각하니, ‘내 만일 집으로 돌아 가면 그 분한 심사를 항상 풀지 아니할지라. 이러할진대 어찌 가정을 이룬 즐거움이 있으리요? 차라리 내 몸을 숨겨 세상을 하직하고 세월을 보내리라.’하여 그 길로 운산을 바라보고 창망히 내달려 우연히 함경도 단천 땅에 이르러 **상원암**이라 하는 절에 들어가 수운대사의 상좌가 되었으나, **대인을 만나** 종적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이같이 만났으니 알지 못하겠도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더뇨?”

남자가 눈물을 흘려 의상을 적시며 이르기를,

“장부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모르나뇨? 이같이 의심할진대 **[B]** 어찌 그때 바로 들어와 환을 풀지 아니하였나뇨?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송정에 있으며 장부가 보고자 하나이까?”

하고 시비 옥란을 부르니 청하에 이르렀다. 남자가 가리켜 말하기를,

“이 곧 그때의 의관한 남자라.”

하니 선옥이 물었다.

“여자가 어찌 의관이 있으리요?”

남자가 대답하였다.

“첩에게 묻지 말고 옥란에게 물어보소서.”

하니, 선옥이 옥란에게 물었다.

“네가 육년전 모월 모일 밤에 어떤 의관을 입었더뇨?”

옥란이 반나절이나 생각하더니 고하였다.

“소비(小婢)가 그때 아이 적이라, 남자가 공자의 도복을 지으시매 앞뒤 수품과 길이 장단이 맞다가 시협코자 하여 소비에게 입히시고 두루 보실 제, 소비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공자가 절에서 보낸 **갓**이 벽에 있거늘 **장난으로 내려 쓰고** 웃으며 남자에게 여쭙되, ‘소비가 공자와 어떠한이까?’ 하니, 남자가 또한 웃으시고 꾸짖어 바삐 벗으라고 하기로 즉시 벗어 도로 걸었사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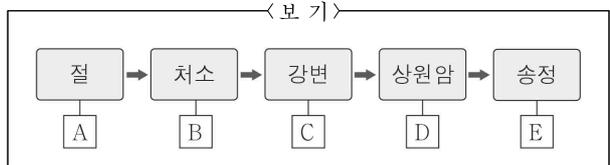
이밖에는 의관을 입은 적이 없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선옥이 듣기를 다하고 자기의 지혜가 없음과, 병설 같은 이씨를 의혹하던 일과, 이씨의 중간 **축출*하던 일**을 일일이 생각하니 후회막급이라.

* 천청(天聽): 임금의 귀, 곧 임금을 가리킴 * 형장(刑杖): 형벌을 집행하는 도구.
* 송정(訟庭): 송사를 처리하는 곳. * 형추(刑推): 죄인을 치며 죄를 깨어 물음.
* 왕인(王人): 왕명에 의해 내려온 관원. * 축출(逐出): 쫓아내거나 몰아냄.

-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 -

40. <보기>는 인물의 이동 경로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옥’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으로 A에서 B로 이동했다.
- ② ‘선옥’이 B에서 C로 이동한 이유는 ‘이씨’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③ ‘선옥’이 C에서 다시 A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이씨’와 앞으로 함께할 삶이 부질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④ ‘선옥’이 C에서 D로 이동한 것은 ‘수운대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 ⑤ ‘선옥’이 D에서 E로 이동한 사실을 ‘처사 부부’는 짐작하지 못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고전소설의 다양한 양상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남녀 주인공이 헤어져 고통과 시련을 겪다가 재회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또한 남자 주인공의 실종으로 인해 진가(眞假) 여부를 밝히는 재판까지 벌어지는 등 송사소설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궁지에 몰리면서도 절개를 지키려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정절담(貞節談)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 ① ‘어사’가 ‘이씨로 수양딸을 정’하는 것에는, 여자 주인공의 지조와 절개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군.
- ② ‘앞니’의 ‘푸른 점’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진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군.
- ③ ‘대인을 만나’게 된 사건은, 시련을 겪던 남녀 주인공이 재회하는 바탕이 되는군.
- ④ ‘갓’을 ‘장난으로 내려 쓰’는 것은, 여자 주인공의 정절을 시험하는 행위이자 남녀 주인공이 분리되는 원인이 되는군.
- ⑤ ‘축출하던 일’은, 남자 주인공의 실종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자, 여자 주인공이 궁지에 몰렸던 상황과 관련되는군.

42.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B]에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② [A]에는 타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B]에는 타인을 원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A]에는 자신의 진심을 숨기려는, [B]에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A], [B] 모두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⑤ [A], [B] 모두 자기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4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진짜 ‘선옥’이 송정에 나타나자 형욱은 ()하고 있군.”

- ① 괄목상대(刮目相對)
- ② 목불식정(目不識丁)
-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 ④ 수구초심(首丘初心)
- ⑤ 좌불안석(坐不安席)

(수능 특강 - 작자 미상, 「박씨전」 // 고3, 2015.04 A형)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공이 신부를 데리고 길을 떠나 날이 저물때, **꺾꺾**에 들어가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한방에 들어가더라.

신부 무릎께를 뺨고 앉을새, 그 용모를 보니 형용홍척하여 보기를 염려론지라. 엷기는 고석 같고 붉은 중에 입과 코가 한 데 닿고, 눈은 달팽이 구멍 같고 치불거지고, 입은 크기가 두 주먹을 넣어도 오히려 넉넉하며, 이마는 메뚜기 이마 같고, 머리털은 짧고 심히 부하니 그 형용을 차마 보지 못할러라. 상공과 신랑이 한번 보매, 다시 볼 길 없어 간담이 떨어지는 듯하고 정신이 없어 두 눈이 어두운지라. 상공이 겨우 정신을 차려 다시금 생각하되,

‘사람이 이같이 추비하니 응당 규중에서 늙힐지언정 남의 집에 출가치는 아니할 터이로되, 구태여 나를 보고 허훈하였으니 이 사람이 필연 아는 일이 있을 터이요 또한 인물은 이러하나 이 또한 인생이라. 만일 내가 박대하면 더욱 천지간 버린 사람이 될 것이니, 아무커나 내가 중히 여겨야 복이 되리라.’

하고, 시백더러 가로되,
“오늘날 신부를 보니 내 집이 복이 많고, 네 몸에 무궁한 경사가 있을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하고, 행로(行路)에 참참이 신부의 마음을 편케 하며 음식도 각급하더라.

여러 날 만에 집에 들어올새, 일가 친척이며 장안 대신택 부인들이 신부 구경하러 많이 모였는지라. 그러구러 신부 들어와 무릎께를 벗고 **중탕**에 앉으니, 그 형용이 어땡다 하리오.

한 번 보매 침 뱉으며 미소하고 수군수군하다가, 일시에 물결같이 헤어지나, 상공은 희색이 만면하여 **외탕**에 앉아 손님을 대하여 신부의 덕행을 자랑하더라.

상공의 부인이 상공더러 가로되,

“대감께서 한낱 자식을 두어 허다한 장안규수를 다 버리고 허망한 산중 사람의 말을 들어 자식의 일생을 그르치니, 남도 부끄럽고 집안도 낭패할지라. 다시 생각하시어 도로 보내고, 다른 가문에 구혼하여 어진 며느리를 얻으면 어떠하오리까?”

상공이 대노하여 부인을 꾸짖어 가로되,

“사람이 아무리 절색이라도 행실이 없으면 사람이 공경하지 아니하니, 이리므로 전하는 말이 양귀비 절색이로되 나라를 망치었으니, 오늘날 신부는 내 집의 복이라. 어찌 색만 취하고 덕을 모르리오. 또 우리 부부 만일 불안히 여기면 자식과 집안을 어떻게 조섭(調攝)하리오. 이제는 내 집이 빛날 때를 당하였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리오. 이런 말을 다시 내지 말고, 부디 심분 잘 삼기소서.”

부인이 어찌 사랑하며, 또한 범인이라 그 어찌 소견이 넉넉하리오.

이러므로 부인이 미워하고, 시백이 또한 내방에 거처를 전폐하니, 비복들도 막 씨를 또한 막대하더라.

막 씨 독부가 되어 슬픔을 머금고,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며 매사를 전폐하니, 일가가 더욱 미워하며 꾸지람이 집안에 가득하되, 다만 상공을 꺼려 면을 못하는지라. 상공이 이 기미를 알고, 노복을 꾸짖어 각별 조섭하며 극히 엄하더라.

또한 시백을 불러 꾸짖어 가로되,

[A] “대법한 사람이 덕을 모르고 색만 취하면 신상에 복이 없고 집안이 망하니, 네 이제 아내를 얼굴이 곱지 않다 하여 구박하니, 범절이 이러하고 어찌 수신제가 하리오. 옛날 제갈공명의 처 황 씨(黃氏)는 인물이 비록 추비하나 덕행이 어질고 천지조화 무궁한지라. 이리므로 공명이 화락하여 어려운 일을 의논하여 만고에 어진 이름을 유전하였으니, 네 처는 신선의 딸이요 덕행이 있으며 또한 조강지처는 불하당이라하였으니, 무죄하고 덕 있는 사람을 어찌 박대하리오. 비록 금수라도 부모 사랑하시면 자식이 또한 사랑한다 하니 하물며 사람이야 일러 무엇하리오. 네 만일 일양 박대하면 이는 나를 박대함이라.”

[중략 줄거리] 박씨는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가산을 일으키고 시백의 장원급제를 도운 뒤 그 동안의 허물을 벗고 절대가인이 된다.

이튿날 되매 시백이 피화당 근처로 배회하며, 방에는 감히 들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되,

‘어서 해가 지면 오늘 밤에는 들어가 전일 박대하고 잘못된 말을 먼저 말하리라.’

황혼을 당하며, 시백이 의관을 정제하니 마음 죄이는 증은 어제보다 조금 나왔으나 생각하던 말은 입을 열어 할 도리 없는지라. 박 씨는 더욱 단정히 앉아 위엄이 씩씩하니 이른바 지척이 천리라.

설마 장부가 되어서 처자에게 박대함이 있다 한들 그다지 말 못할 바가 아니로되 3, 4년 부부간 지낸 일이 참혹할 뿐. 박 씨 또한 천지 조화를 가졌으니 짐짓 시백으로 말을 붙이지 못하게 위엄을 베풀이라.

① 이러하기를 여러 날을 당하며, 시백이 철석간장인들 어찌 견디리오. 자연 병이 되어 식음을 전폐하고 형용이 초췌하니, 어화 이 병은 편작(扁鵲)인들 어이하리오. 승상이 전념하여 조심하시고 일가 황황한들 시백이 말을 감히 못하고 박 씨 혼자 아는지라.

하루는 박 씨 황혼을 당하며, 계화호 하여 시백을 청하는지라. 시백이 박 씨 청함을 듣고 전지도지(顛之倒之)*하여 회화(回化)탕에 들어가니, 박 씨 안색을 단정히 하고 말씀은 나직히 하여 가로되,

“사람이 세상에 처하여 어려서는 글 공부에 잠심하여 부모께 영화와 효성으로 섬기며, 취처하면 사람을 현숙히 거느려 만대 유전함이 사람의 당당한 일이온대, 군자는 다만 미색만 생각하여 나를 추비하다 하여 인류에 치지 아니하니, 이러하고 오류에 들며 부모를 효양하오리까. 이제는 군자로 하여금 여러 날 근고할 뿐 아니라, 군자로 마음이 열려되어 전의 노정을 버리고 그대를 청하여 말씀 고하나니, 일후는 수신제가하는 절차를 전같이 마음 소서.”

하고 말씀이 공손하니 시백이 이때를 당하여 마음이 어떻다 하리요. 공손 답하여 가로되,

“소생이 무지하여 그대에게 슬픔을 끼치니 이제는 후회막급타. 부인이 이렇듯 해로하시니 무슨 한이 있으리오..”

- 작자미상, 「박씨전」 -

* 전지도지(顛之倒之): 엎드러지고 곱드러지며 아주 급히 달아나는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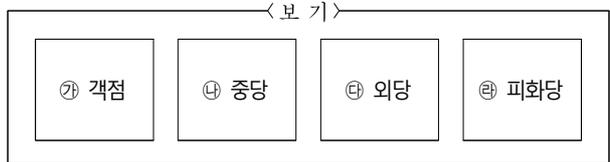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공은 인물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보이고 있다.
- ② 승상과 일가에서는 시백이 아픈 이유를 알지 못했다.
- ③ 상공 부인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혼사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다.
- ④ 박 씨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비복들의 조력으로 견뎌낸다.
- ⑤ 시백은 자신의 결심과는 달리 박 씨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지 못하고 있다.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자신의 실수를 언급하며 상대를 달래고 있다.
- ② [A]와 [B]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A]는 유교적 명분을 들어 질책하고 있고, [B]는 유교적 명분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B]에서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다.

37. 윗글의 내용을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시백’은 ㉠에서 비롯된 ‘박 씨’에 대한 마음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박 씨’의 외모가 드러나고 ㉢에서는 ‘박 씨’의 인품이 드러난다.
- ③ ㉠에서의 ‘승상’의 결심은 ㉢에서 ‘박 씨’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 ④ ㉡에 있는 ‘박 씨’를 본 ‘부인들’과 ㉣의 ‘상공’은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 ⑤ ㉢에서 드러나는 ‘시백’의 태도는 ㉣의 ‘승상’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생긴 것이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공은 인물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보이고 있다.
- ② 승상과 일가에서는 시백이 아픈 이유를 알지 못했다.
- ③ 상공 부인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혼사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다.
- ④ 박 씨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비복들의 조력으로 견뎌낸다.
- ⑤ 시백은 자신의 결심과는 달리 박 씨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지 못하고 있다.

38. 윗글을 읽은 독자가 ㉠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시백이 그동안 얼마나 () 했을지 짐작할 수 있군.”

- ① 군자삼락(君子三樂)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견강부회(牽強附會)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수능 완성 - 작자 미상, 『윤지경전』 // 고3, 2015.10 B형)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윤 승상의 아들 지경은 사리 분별력과 문장력이 뛰어나 과거에서 장원을 한다. 지경은 사랑하는 사이인 최연화와 혼례를 올리던 중 임금의 부름을 받고 궁에 가 자신이 귀인 박 씨의 딸인 연성 응주의 남편으로 간택된 사실을 알게 된다. 부마가 된 지경은 응주를 멀리하고 연화를 만나기 위해 밤마다 연화의 방에 숨어들기를 반복한다. 그러던 중 지경은 연화의 부친인 최 공에게 발각된다.

공이 애련하여 등을 쓰다듬어 가로되,

“네 어찌 그리 미혹한가. 응주를 중대하여 자녀를 낳고 살며 응주를 잘 타이르면, 네 부친과 주상(主上)께 이런 절박한 사연을 고할 것인즉, 주상은 인군(仁君)이시라 허하시리니, 그때 빛나게 해로하기는 생각지 아니하고, 갈수록 응주를 박대하며 귀인의 험담을 이르고 복성군을 미워하며, 밤을 타 도망하여 날마다 내 집에 오니, 응주가 알면 화가 적지 아니하리니, 끝을 어이할꼬.”

부마가 가로되,

“넌들 어찌 모르리이까마는 응주는 천하 괴물 박색이고, 귀인은 간악이 견줄 데가 없고, 복성군은 남 혈기 심한데 홍명화, 홍상이 박 귀인과 결탁하여 필연 **그옥한 흉계를** 지을지라, 응주를 후대하고 그 당에 들었다가 멸문지환(滅門之患)을 면치 못하리니, 아내를 애중하고 응주를 박대하면 불과 빙부와 부친의 죄가 큰즉 정배(定配)요, 적은즉 삭직(削職)이요, 소저는 귀양밖에 더 가리이까. 싫은 것을 강인하고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

공이 말이 없다가,

“어찌하든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 자라.”

생이 사례하고 이후로는 주야로 오니, 공과 소저가 민망하여 아무리 간하여도 듣지 아니하더니, 윤 공이 알고 불려 대책하고 응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 산 사람을 동여 두지 못하고, 날마다 최 씨에게 가니 응주 어찌 모르리요. 부마 내당에 들어간 때 응주 가로되,

“내 비록 용렬하나 임금의 딸이요, 빙례로 부마의 아내가 되었거늘 업수이 여겨 천대하기 심하도다. 최 씨를 얻어 고혹*하였으되 태부(太夫)는 두 아내 두는 법이 없거늘, 부마 어찌 두 아내 있으리요. 최홍일은 어떠한 사람이 완대 부마에게 제취를 주어 주상과 첩을 업수이 여김이 심하뇨.”

[A] 지경이 정색하여 가로되,

“내 할 말을 응주 하시는도다. 일국에 도령이 가득하거늘, 이미 얻은 사람을 내 어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탐하여 응주와 화락하리요. 응주 만일 최 씨를 청하여 한 집에서 화목하기를 황영*을 본받을진대, 최 씨와 같이 공경하고 화락하려니와, 투기하여 나를 원망한즉 평생 박명을 면치 못하리도다.”

응주 웃으며 가로되,

“당초에 조강지처 있는지 없는지 내 심궁 처녀로 어찌 알리

요. 상명으로 부마의 아내가 되어 나온 지 거년이나, 천대가 태십하여 행로(行路) 보듯 하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요.”

지경이 웃으며 가로되,

“여염 사람이 부부 간에 하사하되 응주 너무 지구 공경하여 구실 삼아 하루에 두어 번 들어가 앉기로 편치 못하고 꿇어앉으니 이밖에 더 공경하리요. 주상이 현명하시니 나를 그르다 아니하실지라. 본대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하나니**, 아내 사랑하는 묘리를 배워다가 가르치소서.”

하고 크게 웃고 소매를 떨치고 나오니, 응주 종일토록 울더니, 그 후 입결하여 박 씨더러 일일이 고하며 설위하니, 박 씨 대로하여 상께 이대로 주하여,

“최 씨를 없이하고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

청하니, 상이 윤지경을 불러 책망하여 가로되,

“네 아내즉 응주요 정처(正妻)란 것이 유의 중하고, 또 여염 필부 회매와 달라 금지옥엽(金枝玉葉)이어늘, 네 최 씨를 퇴채 하였거늘, 퇴혼* 취하라 한 명을 거역하고 감히 교통하여 좃기를 위법하는가. 네 또 빙모*를 간악한 유로 훼방한다 하니, 네 무슨 일로 보았는가. 네 또한 빙자지의 있고 처부모라 하였으니, 어버이를 훼방하는 자식이 어디 있으리요.”

지경이 머리를 땅에 닿아 사죄하여 가로되,

“하고 이리하시니 황공하여이다. 신이 외람하오나 소회를 세세히 전달하리이다. 참관 최홍일은 신의 아버 종매부라. 어려서부터 즉장지의와 아버 형제지의로 신이 부형같이 공경하고 홍일이 신을 자식같이 사랑하옵더니, 조강 윤 씨 작고하옵고 후처 이 씨 들어와 생녀하오니, 자못 총혜하고 자색이 빼어나오니, 아버와 홍일이 서로 약속하여 피차 서로 소신은 최가 사위 될 줄 알고, 최 씨도 소신의 아내 될 줄 아옵더니, 전년 봄에 혼인날을 정하와 신이 최가에 가 전안하옵고 배례를 겨우 하온 후, 명패를 급히 받아 신이 함친을 못 하고 들어오니, 부마위를 주시고 연성 응주를 맡기시니, 신이 과연 응주의 탓이 아니온 줄 아오되, 최 씨는 어려서부터 서로 보아 사랑하옵던 마음이 깊었삽고, 응주로 하와 이제까지 참았사오니 부귀빈천이 다르오나, 원역*하옵은 비상지원*이 없지 아니하오리까. 응주를 대접하고 최 씨를 다른 데 출가하라 하신들 언약이 깊고 빙채와 교배합환하였으니, 어찌 다른 데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을 하리이까마는, 엄교를 두려워 홍일이 신을 거절하여 오지 못하게 하오나, 홍일을 속이고 가만히 가서 만나온 일이 있사오나, 응주 신에게 온 지 겨우 거년에 신정의 뜻을 모르며, 투기하여 신을 준책하옵다가 또 전하게 고하니 이도 여자의 부덕(婦德)이라 하시리이까.”

상이 탄식하여 가로되,

“네 나이 어리되 소견이 높아 **급암*의 직간(直諫)을 가졌도다.** 그러나 응주는 내 딸이라, 생심도 박대치 말라.”

- 작자 미상, 『윤지경전』 -

* 고혹: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림.

* 황영: 중국 순제의 두 황비인 아황과 여영.

* 퇴혼: 정한 혼인을 어느 한 편에서 물림.

* 빙모: 장모.

* 원역: 원통한 누명을 써서 억울함.

* 비상지원: 억울한 옥살이로 인한 원한.
* 급암: 황제에게 간(諫)하는 것을 잘했던 중국 전한의 정치가.

3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경'은 자신이 부마가 된 것이 '옹주'의 탓은 아니라고 말했다.
- ② '임금'은 '귀인'을 대하는 '지경'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 ③ '윤 공'은 '지경'이 옹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 ④ '최 공'은 밤마다 '연화'를 찾아오는 '지경'의 처지에 대해 안쓰럽게 여겼다.
- ⑤ '옹주'는 '지경'이 부마로 정해지기 전부터 '지경'과 '최 씨'의 사이를 알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윤지경전」은 애정 소설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연을 위해 여러 장애와 시련에 맞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최 씨를 정처(正妻)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주인공의 소신 있는 태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는 당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는 처첩(妻妾)을 엄격히 구별하고 정처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중시했던 당대의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또한 조선 중종 때 후궁인 박 씨와 그의 아들 복성군을 중심으로 외척 세력이 형성되고 그들에 의해 정치 질서가 문란해졌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점도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언행을 통해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박 귀인', '홍명화', '홍상' 등이 '그윽한 흥계'를 꾸밀 것이며 그들이 결국 큰 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경'이 생각한 데서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그런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라는 말은 '급암의 직간을 가졌도다'라는 '임금'의 말과 함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지경'의 태도를 부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하나니'라는 '지경'의 말은 '최 씨'와 '옹주'의 인물 됴됨이의 차이를 드러낸 말로 처첩을 엄격히 구별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귀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연을 위해 '지경'이 맞서야 하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 ⑤ '최 씨'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이 없다는 '지경'의 말은 정처(正妻)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자 한 것으로 당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말이라고 할 수 있어.

3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옹주'는 '지경'에게 탁월한 일을 예견하며 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② '옹주'는 '지경'이 신분의 차이를 들어 자신을 멀리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지경'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옹주'가 한 말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지경'은 '옹주'가 부귀를 탐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다.
- ⑤ '지경'은 '옹주'가 '옹주'를 위하는 자신의 마음까지 왜곡해 가며 '최 씨'를 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 특강 - 김만중, 「사씨남정기」 // 고3, 2016.03)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양부분의 줄거리] 사 씨는 유한림과 혼인하여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나 첩 교 씨의 음모로 가문에서 쫓겨난다. 사 씨는 온갖 고난을 겪다 강에 뛰어들려 하지만 여종(차환)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사 씨는 통곡하다 잠들고 꿈속에서 낭랑을 만난다.

낭랑은 시비를 시켜 사 씨에게 차를 올리게 했다. 차를 마시고 사 씨에게 말했다.

“부인은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 시비들이 반드시 의심할 거예요. 빨리 돌아가세요.”

㉠ “낭랑께서 부르시어 첩이 짧은 목숨을 겨우 이었습니다만, 실로 의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 봐야 응당 물에 뛰어들 뿐입니다. 낭랑께서 첩을 비루하게 여기시지 않아 시비의 말석 옆 자리이라도 머물게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낭랑을 모시며 지내고 싶습니다.”

낭랑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은 다른 날 마땅히 이곳으로 와서 조대가*, 맹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예요. 지금은 기한이 차지 않았으니 머물고자 해도 어찌 가능하겠어요? 남해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지요.”

㉡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곧이어 반드시 인도할 사람이 생길 터이니 심려치 마세요.”

이어서 동쪽 벽 자리의,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두 눈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대가 말한 위나라의 장강*이랍니다.”

또 용모가 밝은 꽃과 같고 얼굴이 수려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한나라의 반첩여*예요.”

또 서쪽 벽 자리의, 거동이 한아하면서 얼굴이 반첩여 같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후한의 조대가예요.”

또 얼굴이 살지고 피부가 조금 검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양치사의 아내인 맹 씨예요.”

사 씨가 다시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 말했다.

㉔ “여러 부인께서는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옵니다. 오늘 직접 얼굴을 뵈 수 있을 거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부인은 각각 눈빛으로 마음을 보냈다.

사 씨가 절하고 물러나오는데, 낭랑이 말했다.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 오십 년 뒤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여동에게 명해 사 씨를 모시도록 했다. 사 씨가 대전에서 내려오자마자 대전에 열두 개의 주름이 드리워졌고,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사 씨는 마음이 놀라 몸이 움찔했다. 유모와 차환은 사 씨가 소성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사 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다.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유모에게 말했다.

“내가 조금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부인께서 한동안 숨이 막힌 듯하더니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혼백이 어디라도 다녀오셨나요?”

사 씨가 이어 꿈속에서 낭랑을 만나 서로 문답한 말을 전하고, 후원의 대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분명히 푸른 옷의 여동을 따라서 저 길로 갔네. 자네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따라오게.”

마침내 작은 길을 따라 대숲 밖으로 가니 과연 묘당 한 채가 있었다. 현판에 ‘황릉묘’라 써 있으니, 정말로 아황과 여영의 묘당이였다. 묘당의 모습은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없었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 묘당의 문으로 들어가 대전 위까지 올라갔다. 흙으로 빛은 두 비(妃)의 소장(塑像)이 엄연히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 씨가 향을 사르고 공손히 아뢰었다.

“천첩이 낭랑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뒷날 하늘에서 뵈더라도 마땅히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 서쪽 행랑에 앉았다. 굶주림이 자못 심하여 차환에게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어오게 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나눠 요기하고 서로 말했다.

“묘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신령이 우리를 회롱했다.”

그 무렵 해가 서산에 지고 달빛이 어둑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사 씨 일행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닐까?”

사 씨가 나아가 바라보니 한 명은 여승이요,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두 사람이 말했다.

“낭자께서는 어려움을 만나 강물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나

요?”

세 사람이 놀라며 말했다.

“스님이 어찌 그것을 아시나요?”

여승이 놀라, 예를 올리며 말했다.

“저희는 동정호의 군산에 있습니다. 방금 비몽사몽간에 백의 관음께서 말하기를 ‘어진 여인이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 하니 빨리 황릉묘에 가서 구하라’ 하여 배를 저어 왔더니 과연 낭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정말 신이하군요.”

사 씨가 말했다.

㉕ “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구해주시니, 매우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을 따라 가면 혹 암자에 폐를 끼칠까 걱정입니다.”

㉖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니다. 낭자께서는 염려지 마십시오.”

모두가 서로를 부족해 언덕을 내려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갔다. 갑자기 한 줄기 순풍이 황릉묘로부터 불어와 순식간에 군산에 도착했다. 군산은 그 이름처럼 동정호 칠백 리 가운데 홀로 우뚝했다. 사방이 모두 물이고 기이한 바위들이 모였으며, 대숲은 뽀뽀하고 솔숲은 무성하여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조대가, 맹광(맹 씨), 장강, 반첩어: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성들로 알려졌다.

40.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사 씨’는 깨어난 뒤에도 꿈에서 경험한 일을 생생히 느꼈다.
- ② ‘사 씨’ 일행이 찾아가 ‘황릉묘’는 초라하고 황량한 곳이었다.
- ③ ‘사 씨’ 일행은 남에게 음식을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 ④ ‘사 씨’ 일행은 ‘황릉묘’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던 중에 ‘여승’ 일행을 만났다.
- ⑤ ‘사 씨’가 도착한 ‘군산’은 예로부터 세속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41. ㉑ ~ ㉖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
- ② ㉒: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 상대방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㉕: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여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천상계([A])와 지상계([B])라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꿈속’, ‘비몽사몽간’과 같은 반(半)현실적 공간([C])이라는 세 개의 공간적 층위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이야기 전개와 인물 형상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 ① [C]에서는 [A]의 뜻에 따라 [B]에서의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사 씨’에게 예고하고 있다.
- ② [C]의 ‘꿈속’은 ‘사 씨’가 [B]에서 지켜나 가야 할 삶의 지표와 그녀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을 알리고 있다.
- ③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 씨’가 [B]에서 느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④ [B]의 존재인 ‘사 씨’가 [C]의 ‘꿈속’에서 만나는 ‘장강’, ‘반첩여’ 등의 인물은 그녀의 현숙한 인물됨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⑤ [B]에서 ‘여승’이 ‘사 씨’를 구하기 위해 ‘군산’에서 온 것은 [C]의 ‘비몽사몽간’을 통해 [A]의 뜻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능 완성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고3, 2017.10)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정수정은 남북을 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 장연과 함께 제후가 된다. 정수정이 자신을 부마로 삼으려는 황제에게 여인임을 밝히고, 황제는 정수정과 공주를 장연과 혼인시킨다. 한편 정수정은 장연의 첩이 방자하게 글자 참수한다.

공중 상하 크게 놀라 태부인께 고한대 태부인이 대경실색하여 즉시 장 후를 불러 대책(大責) 왈

“네 벼슬이 공후에 있어 한 여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찌 세상에 행신하리오? 며느리가 되어 나의 신임하는 시비를 때로써 별하는 것도 불가하거든 하물며 참수지경에 이르니 이는 남이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거늘 장 후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물러나서 이에 정 후의 신임하는 시녀를 잡아내어 무수 곤책하고 죽이고자 하거늘 공주와 원 부인이 힘써 간하여 그치니라. 이후로부터 장 후가 정 후를 마뜩잖게 여겨 조석정성(朝夕定省)에 만나매 외대(外待)함이 많은지라. 정 후가 마음에 극히 불쾌하면서도 장 후의 냉대함은 거리까지 않았다. 일일은 중당에서 장 후를 대하여 왈

“군후가 일개 회첩으로 말미암아 첩을 깊이 한하시나 군가의 제가(齊家)하시는 근본이 아닌가 하나이다.”

장 후가 대로 왈

“그대 한낱 공후의 위를 믿고 여자의 경부(敬夫)하는 도리 없어 감히 가부의 회첩을 처살하여 교만 방자함이 이를 데가 없으니 가히 온순한 부덕(婦德)인가?”

정 후가 분해하여 함부(含淚) 왈

“내 일찍 이 같음이 본대 부모 유교(遺敎)를 저버리지 못함ियो, 다시 황은을 받들므로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부 되었으나 어찌 녹록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하리오?”

하고 즉시 외당에 나와 진시회를 불러 분부하되

“내 이제 청주로 가려 하나니 군마를 대령하라.”

하고 이에 정당에 들어가 태부인께 하직을 고한대 태부인 발연 왈

“어찌 얻고 없이 가려 하나뇨?”

정 후 왈

“봉음이 중대하옵고 군무 긴급하옵기 돌아가려 하나이다.”

하고 공주와 원 부인을 이별하고 외당에 나와 위의(威儀)를 재촉하여 ㉠ 청주에 돌아와 좌정 후 전령하여 삼군을 호상하고 무예를 연습하며 성지(城地)를 굳게 하여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방지하라 하다.

차설. 이전에 철통골이 겨우 일명(一命)을 보전하여 호왕을 보고 패한 연유를 고한대 호왕이 대성통곡 왈

㉡ “허다 장졸을 죽여시니 어찌 원수를 갚지 아니하리오?”

하고 문무를 모아 대장을 의논할새 문득 한 장수가 왈

“마웅은 신의 형이라. 원컨대 병사를 주시면 당당히 형의 원수를 갚고 태종의 머리를 베어 대왕 회하에 드리리다.”

하거늘 모두 보니 이는 거기장군 마원이라. ㉢ 범의 머리에 잔나비의 팔이며 곰의 등에 이리 허리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는지라. 호왕이 대희하여 마원으로 대원수를 삼고 철통골로 선봉장을 삼아 정병 오만을 징발하여 출사할새

수삭지내(數朔之內)에 하북 삼십여 성을 항복받고 이미 양성에 다다랐는지라. 양성 태수 범규홍이 대경하여 바빠 상표 고변한대 상이 대경하사 문무를 모아 의논할새 제신(諸臣)이 다 정수정 아니면 대적할 자 없나이다 하거늘 상 왈

“전일에는 정수정이 남장한 줄 모르고 전장에 보냈거니와 이미 여자인 줄 알진대 어찌 만 리 전진에 보내리요?”

제신 왈

“차인이 비록 여자이나 하늘이 각별 폐하를 위하여 내신 사람이오니 폐하는 염려 마소서.”

하거늘 상이 마지못하여 사관(仕官)을 청주에 보내어 정 후를 명초(命招)하신대 정 후가 대경하여 즉시 사관을 따라 황성에 이르러 입궐 속사하니 상이 반기시며 왈

㉣ “이제 국운이 불행하여 북적(北狄)이 다시 일어나 여차 여차 하였다 하니 가장 위급한지라. 만조가 경을 천거하나 집이 차마 경을 전장에 보내지 못하여 의논함이니 경의 소견이 어떠하뇨?”

정 후가 왈

“신첩이 규중에 침몰하오니 성은을 감축하옵는 바라. 차시를 당하여 어찌 안전히 앉아 있으리었고? 신첩의 몸이 바스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북적을 소멸하여 천은을 만분지일이나 갚사울까 바라나이다.”

(중략)

원수가 소와 양을 잡아 삼군을 위로할새 원수가 또한 술이 연하여 나와 취흥이 도도하매 문득 생각하고 좌우를 호령하여 중군 장연을 나입하라 하니, ㉤ 무사 죄사슬로 장연의 목을 읊어 장하에 이르매 장 후 꿇지 아니하거늘 원수가 대로 왈

“이제 도적이 지경을 침노함에 황상이 근심하사 나로 도적을 막으라 하시니 내 황명을 받자와 주야로 근심하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막중 군량을 때에 맞추어 대령치 아니하였느냐? 장령을 어긴 죄를 면치 못하였는지라. 군법은 사사 없으니 그대는 나를 원(怨)치 말라.”

하고 무사를 명하여 내어 베라 한대 장 후가 대로 알

“내 비록 용렬하나 그대의 가부이거늘 소소 혐의로써 군법을 빙자하고 가부를 곤욕하니 어찌 여자의 도리리오?”

하거늘 원수가 차언(此言)을 듣고 항복을 받고자 하는 뜻이 더욱 강해져 짐짓 꾸짖어 알

“그대 일의 형세를 모르는도다. 국가 중임을 맡음에 그대는 내 수하에 있는데 그대 이미 범법하였은즉 어찌 부부지의를 생각하여 군법을 착란케 하리오. ㉠ 그대 나를 초개(草芥)같이 여기는데 내 또한 그대 같은 장부는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무사를 재촉하는지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4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연은 정수정이 신임하던 시비를 죽이고자 하였다.
- ② 정수정은 부모의 뜻과 황제의 명에 따라 장연과 결혼했다.
- ③ 황제는 정수정을 남자로 알고 전장에 내보낸 적이 있었다.
- ④ 정수정은 전쟁 중에 장연에게 군량을 가져오는 임무를 맡겼다.
- ⑤ 정수정은 장연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낙심하였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정수정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비유적 서술을 통해 마원이 용맹한 인물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황제는 사태의 위급성을 언급하며 정수정에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중을 물어보고 있다.
- ④ ㉣: 장연은 장수로서의 능력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수정에게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정수정은 장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균열이 생겨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며 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장연을 만류하는 공주와 원 부인의 행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장연을 질책하는 태부인의 말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제신들이 황제에게 정수정을 천거하는 것에서, 공적 역할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군.
- ④ 장연이 정수정에게 경부하는 도리가 없음을 책망하는 것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정수정이 녹록한 아내자의 소임을 기꺼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서,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겠군.

45. ㉠에 나타난 ‘호왕’의 심리를 표현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분축원(含憤蓄怨)
- ② 만시지탄(晩時之歎)
- ③ 득의양양(得意揚揚)
- ④ 각골난망(刻骨難忘)
- ⑤ 천려일실(千慮一失)

국평일 배포 자료 EBS 고전 소설

by 교육청 정답

- 고1, 2014.03 「흥부전」 22. ⑤ 23. ① 24. ①
 고1, 2014.06 「춘향전」 34. ⑤ 35. ② 36. ① 37. ③
 고1, 2014.09 「흥부전」 31. ④ 32. ③ 33. ①
 고1, 2015.03 「웅고집전」 38. ③ 39. ④ 40. ②
 고1, 2015.09 「열녀춘향수절가」 40. ③ 41. ⑤ 42. ①
 고1, 2016.09 「이생규장전」 34. ① 35. ⑤ 36. ② 37. ③
- 고2, 2013.03 B형 「최척전」 31. ⑤ 32. ① 33. ①
 고2, 2013.06 A형 「이생규장전」 34. ② 35. ① 36. ① 37. ④
 고2, 2014.09 B형 「서동지전」 34. ① 35. ② 36. ⑤ 37. ③
 고2, 2016.09 「서동지전」 36. ④ 37. ② 38. ③ 39. ①
- 고3, 2013. 03 A형 「최척전」 37. ⑤ 38. ⑤ 39. ① 40. ⑤
 고3, 2013. 07 B형 「적벽가」 31. ② 32. ⑤ 33. ③ 34. ①
 고3, 2013. 10 B형 「웅고집전」 39. ③ 40. ⑤ 41. ② 42. ⑤
 고3, 2014. 04 A형 「화산중봉기」 40. ④ 41. ④ 42. ② 43. ⑤
 고3, 2015. 04 A형 「박씨전」 35. ④ 36. ④ 37. ⑤ 38. ②
 고3, 2015. 10 B형 「윤지경전」 31. ⑤ 32. ③ 33. ③
 고3, 2016. 03 「사씨남정기」 40. ④ 41. ① 42. ③
 고3, 2017. 10 「정수정전」 42. ⑤ 43. ④ 44. ① 45. ①